

이 설 자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기질(Temperament)에 따른 영유아의  
색채 표현 연구

2004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미술교육전공

백 재 경

## 논문개요

이전부터 행동의 특징을 측정하고 기술하기 위해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는 용어는 성격(personality)이었으나 1950년에 들어와서 기질(temperament)이라는 새로운 용어가 등장하였다. 1950년 말 미국에서는 S. Chess와 A. Thomas가 중심이 되어 <New York Longitudinal Study with Children>이라는 대규모 연구프로젝트가 수행되었고 거의 같은 시기에 소련에서는 Moris M. Teplov와 Vull S. Merlin이 중심이 되어 Pavlov의 유형이론이 인간의 행동특징연구에 길잡이가 되었다. 이들의 개척자적 연구는 Kretschmer나 Sheldon의 전통에서 탈피한 새로운 과학적 현대기질연구의 초석이 되었다는 새로운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Kretschmer나 Sheldon은 체질의 특징에 따라 결정되는 행동특징을 기질이라는 용어를 써서 표시하였으나 이와는 대조적으로 현대기질 연구자들은 체질의 특질보다는 외부로 나타나는 관찰 가능한 여러 가지 행동특징의 총화가 기질이라고 간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통적 기질연구자들과는 크게 다른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같은 현대기질연구자일지라도 미국의 기질연구자와 소련의 기질연구자들은 기질연구의 방법이 다르고 대상을 크게 달리하고 있다. 무엇보다 Teplov와 Merlin과 같은 소련의 기질연구자들은 충분히 설명개념으로 간주될 수 있는 고등신경계통의 강도이론을 기초로 하여 그 특징을 전기생리학적 방법이나 지필법으로 측정하며 연구대상은 주로 성인으로 하였다. 이와는 달리 미국의 기질연구자들은 행동발달이론을 기초로 하여 그 특징을 지필검사나 임상적 면접법으로 측정하고 있으며 대상은 주로 유아동으로 두었다. 본 연구는 후자 쪽에 기초하여 이루어졌다는 것을 먼저 밝혀둔다.

본 연구는 서울소재 사설 유치원과 어린이집, 미술학원에서 2002년 11월

부터 2003년 9월까지 3세에서 7세까지의 영유아와 그들의 부모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지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먼저 어린이들의 부모들로부터 기질검사를 한 후, 이것을 바탕으로 세 가지 기질로 구분하였으며 다음으로 영유아들의 설문을 통하여 좋아하는 색과 싫어하는 색, 어떤 색채를 보았을 때 연상되는 것들, 백지에 자유롭게 그림을 그리게 하였을 때 유아들의 색채표현을 알아보고 그 통계를 내었다. 본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기질검사에서는 순한 기질(easy temperament)의 아이가 가장 많았으며(82.5%), 까다로운 기질(difficult temperament)의 아이(10.3%), 반응이 느린 기질(slow-to-warm-to temperament)의 아이(7.2%)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S. Chess와 A. Thomas의 주장과 일치하고 있다. 하지만 까다로운 기질의 아이가 반응이 느린 아이보다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이전보다 빠르고 신속한 것을 요구하는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적응하면서 살아야 하다보니 반응이 느린 기질의 아이는 줄고 어릴 때부터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야 하는 어린이는 늘어 까다로운 기질군은 점점 많아진 것이다.

다음으로 각 기질의 영유아들이 나타내는 색채선호도에 대한 결과를 알아보면 순한 기질의 아이들이 녹색(21.4%), 하늘색(15.4%), 파랑(10.7%) 순으로 좋아했다. 까다로운 기질의 아이들은 노랑(36%), 빨강(25.3%), 파랑(18.7%), 마지막으로 느린 기질의 아이들은 회색(25%), 검정(21.2%), 파랑(11.5%)의 순으로 색채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정대식의 「아동미술의 심리연구」와 비교했을 때 흥미로운 일치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여기에서 녹색을 좋아하는 어린이는 완고하며 주장이 강하고 사물을 잘 판단하고 상상력이 풍부하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 그것은 녹색을 가장 좋아하는 순한 기질의 아이의 특징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반면, 까다로운 기질의 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노랑색은 성격이

매우 냉정하며 친구를 골라 사귀고 신경이 예민하며 권위적이라고 서술하고 있어 이 또한 유사점을 보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느린 기질의 아이가 좋아하는 회색은 경계심이 많고 외로움을 타며 냉철하고 내성적이나 창의력이 풍부하고 편식의 습관이 있다고 하는데 상당부분이 맞아떨어진다.

하지만 이 유아들에게 아무런 제한 없이 자유화를 그리게 했을 때 이런 특징, 즉 좋아하는 색채만을 많이 쓴다거나, 싫어하는 색채는 전혀 쓰지 않는다거나 하는 것을 볼 수 없는데 아마도 그것은 학원이나 부모들에 의해 도식화된 그림을 그리도록 강요되어지는 관습 때문일 것이다. 이것은 어린 유아보다 사회생활을 하게 되는 5~7세 아이일수록 더 심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되어진바 짐작해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런 연구는 많은 변수가 있으므로 앞으로 더욱 심도 있고 다양한 방면의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목 차

## 논문개요

I. 서 론 .....	1
1. 연구 목적과 범위 .....	1
2. 연구 방법 .....	2
3. 연구의 한계점 .....	3
II. 기질(Temperament)의 이론적 배경 .....	4
1. 기질의 개념과 학자들의 견해 .....	4
2. S. Chess와 A. Thomas의 기질론 .....	12
III. 영유아와 색채관계의 이론적 배경 .....	24
1. 색채의 개념 .....	24
2. 영유아와 색채 .....	26
3. 영유아의 색채인지 발달단계와 색채선호도 .....	30
IV. 영유아의 기질조사 및 색채선호도연구 .....	39
1. 조사 절차 .....	39
2. 기질 연구 - 기질군 분류를 중심으로 .....	44
3. 색채선호도 조사 .....	46
V. 결 론 .....	50

## 참고문헌

ABSTRACT(영문초록)

## 부록

## 표 목 차

1. <표 1> Rothbart의 기질모형 .....	8
2. <표 2> Thomas와 Chess의 부모용 유아기질검사도구 .....	15
3. <표 3> 각 기질 범주별 구성문항 배점표 .....	21
4. <표 4> 연구에 참가한 영유아 인원 .....	39
5. <표 5> 본 연구에 쓰여진 부모용 유아기질검사도구 .....	40
6. <표 6> 기질 유형의 조작적 정의 - 기질군 분류기준 .....	43
7. <표 7> 설문지에 쓰인 기질 문항구성 .....	44
8. <표 8> 기질군에 따른 남·여아 분포와 백분율 .....	44
9. <표 9> 성별, 연령별로 본 각 기질군의 분포와 백분율 .....	45
10. <표 10> 기질군에 따른 선호 색채 .....	47
11. <표 11> 색채의 심리 .....	47
12. <표 12> 기질군에 따른 색채선호도 분포와 백분율 .....	48

# I. 서론

## 1. 연구목적과 범위

영유아와 유아동들은 그림을 그릴 때 선과 형, 그리고 색을 이용하여 표현을 한다. 하지만 그 중에서 형태보다는 색채에 더 민감해서 순수한 즐거움으로 색을 즐긴다. 그만큼 색채와 유아들은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것이다.

영유아의 색채선호나 색채표현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유아 주변의 환경적인 요인들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환경도 유아 개개인의 고유한 특성인 기질의 영향을 받는다는 주장과 더불어, 학자들은 유아발달이 개인의 기질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나타남을 인지하고 유아의 발달 및 색채표현을 설명하고 예측하는데 있어서 유아의 '기질'을 중요변인으로 연구하였다. 본 연구도 이러한 기질을 중요한 변수로 보고 그에 따른 색채표현을 알아보는데 그 목적을 두고 설문지의 종합적인 결과에 대한 통계와 분류를 하였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은 모든 것이 색을 띠고 있고, 이 색채는 생활 감정을 자극하는 효과와 요소가 있기 때문에 색채의 중요성은 시대를 거듭할수록 더해가고 있다. 최근에는 색채심리를 통한 심신의 치료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흐름으로 보아 색채에 대한 더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색채 치료까지는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색채 선호와 색채표현, 색채연상까지를 그 범주로 잡았다. 또한 그 대상도 아직 사회적인 환경의 영향을 덜 받은 영유아까지로 제한했으며 후천적인 습득이 아닌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며 성장해 가면서도 별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 기질에 대해 먼저 조사한 후 유아의 색채에 관련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본 연구는 색채가 영유아의 감성적, 지적, 미적, 창조적 성장의 부분을 나타내는 중요한 단서로 활용되고 있으므로 그들이 나타내는 색채 표현과 기질을 적절히 조화시켜 올바른 성장을 하도록 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 2. 연구 방법

### 1) 문헌 연구

미술 교육학, 기질이론에 따른 학자들의 견해와 색채이론에 관한 전반적인 문헌, 색채개념과 이해, 여러 학자들의 아동미술발달단계별 표현의 특징과 색채표현의 특징에 관한 문헌을 조사한다.

### 2) 사례 연구

서울지역 유치원 1곳과 어린이집 2곳, 미술학원 3곳을 정하고 3세~7세까지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남아 407명, 여아 319명, 총 726명을 조사하였다.

- (1) A. Thomas와 S. Chess의 부모님용 유아 기질 검사 도구에서 부모님들의 참여를 더 활발히 하기 위하여 72문항을 32문항으로 재구성한 설문지로 작성한다.
- (2) 설문지의 형식은 나이와 성별뿐만 아니라 나중의 색채 표현 조사와 대조를 위해 이름도 기재하게 하였다.
- (3) 12가지의 색채를 선정하고 유아용 색채표현 설문지를 작성한다.
- (4) 좋아하는 색, 싫어하는 색, 색채를 본 후 연상되는 것을 부모님과 같이

기재하도록 한다.

- (5) 한 장의 백지에 색이 들어간 모든 재료를 사용하여 자유롭게 색채표현을 하게끔 한다.

### 3. 연구의 한계점

색채에 관한 견해는 여러 학자마다 견해가 다르고 유아의 그림 역시 자신의 요구나 감정에 의해 일정한 형식이 없듯이 주어진 환경이나 학습경험에 의해서 어떤 특정한 색에 대한 관심은 수시로 변화하며 그 색의 사용은 상당기간 동안 요구에 의해 사용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면보다는 주관적인 면에 치우쳐 있음을 간과 할 수는 없다. 즉, 이것으로 유아의 성격이나 심리를 완전히 판단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또한 색채표현은 영유아들에게 주어진 환경이나 지역적 특성, 학습경험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데 기질은 이와 같은 변인의 한 부분일 뿐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 II. 기질 (temperament)의 이론적 배경

근래에 들어와서 주목받고 있는 기질(temperament)은 과거에는 성격(personality)이라는 말과 흡사하게 쓰였다. 하지만 기질은 분명 우리가 보통 쓰고 있는 성격과는 분명 다르다고 할 수 있겠다. 기질은 엄밀히 말하면 성격의 하위체계라 함이 더 옳을 것이다. 다시 말해 성격(personality)은 성격으로서 가치판단 평가적인 의미를 내포한 성격(Character)과 정서적 특징, 자극에 대한 감정적 반응을 포함하고 있고 유전적인 것에 기초를 둔 생리적 구조를 가진 기질(temperament), 개인의 고유한 심리적 생리적 특성으로서 타인과 구별되는 성격의 차이성, 독자성을 가진 개성(individuality)의 총체<sup>1)</sup>라고 할 수 있겠다. 결론적으로 사람의 성격은 타고난 기질과 환경의 영향이 합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성격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졌지만 기질부분은 성격의 한 부분으로 성격에 비해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었으나, 근래에 들어와서는 기질도 주목을 받기 시작하여 학자들의 연구가 미흡하게나마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기질에 대한 연구들은 조금씩 차이를 보이지만, 결론적으로 기질은 환경적 자극에 대한 정서반응의 질과 강도에서 안정적으로 나타나는 개인차<sup>2)</sup>를 의미한다는데 공통적인 결론을 맺고 있다.

### 1. 기질의 개념과 학자들의 견해

---

1) G. Allport, 「Personality - Psychological Interpretation」, 1937

2) H. H. Goldsmith, 「Roundtable : What is temperament? Four approaches」, Child Development, p. 58.

일단 임신 중에 신체적인 이상, 특히 뇌 발달의 이상이 없다고 했을 때 아이가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는 생래적인 정신적 경향을 기질이라고 부른다. 기질은 부모에게서 받은 유전적 바탕과 수태후 임신 중에 받은 외부 환경적 요인의 합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그 결과를 볼 수 있어도 그 원인요소를 캐는 것은 몇몇 유전 질환을 제외하고는 불가능하다. 지금까지 알려진 이러한 기질적 차이의 원인 요소로는 수태시간에서 출생할 때까지의 정확한 시간, 유전인자, 성별의 차이, 임신 중의 환경적 요소 정도로 그 나머지 부분은 불명확하고 이러한 기질은 시간이 지날수록 환경의 상호작용으로 복잡해지며 겉으로 확연히 드러나는 성격으로 되는 것이다.<sup>3)</sup> 결론적으로 기질은 유전에 의해 만들어지며, 후천적으로는 거의 변화되지 않는 기본적인 특성으로 외부의 기대나 요구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는가로 나타나는 개인의 행동방식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다.<sup>4)</sup>

기질의 개념을 처음으로 체계적으로 제시한 사람은 Allport(1961)로 그에 따르면 기질이란 유전적 정서의 본질 즉 정서적 자극에 대한 민감성, 반응의 일상적인 강도 및 속도, 일반적인 기분상태, 모든 독특한 변화 및 기분의 강도를 포함하는 개인별 본성 등의 특징적인 현상이며, 선천적인 구조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덧붙여 이러한 현상의 기원은 보통 유전적이라 하였다.

하지만 본격적인 기질연구는 버클리 헬스 종단연구 (Berkeley and Fels Logitudinal study)에서 이루어졌는데, 이 연구에서는 기질을 영아기부터 성인기까지 연속성을 띠는 성격발달의 한 측면으로써 J. Kagan과 H.A. Moss (1962), E. Schachter와 N. Baylay(1963)가 다루었다.<sup>5)</sup>

---

3) 최영,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과학교실 / 전남대학교병원 정신과 소아청소년 정신건강클리닉  
<http://drchoi.pe.kr>

4) 박정희, 「아아와 친해지는 6가지 방법」, 데이콤 웹진, 200년 9월호

A. H. Buss와 R. Plomin(1975)은 기질은 태어나면서 나타나는 성격특성으로 성장후까지 매우 안정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유전적 성향이라고 주장했다. Buss와 Plomin은 4~5세의 쌍생아 139명의 성격을 비교한 바 있는데, 쌍생아 각각의 성격을 비교한 연구결과, 일란성 쌍생아는 이란성 쌍생아보다 정서반응, 활동정도, 사회성 모두에서 뚜렷하게 서로 더 비슷했다. 최근의 연구에서도 일란성 쌍생아가 오랜 동안 서로 다른 가정에서 양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놀라울 정도의 유사성을 지니고 있음이 보고되기도 했다. 이 연구가 시사하는 바는 기질이 어느 정도 유전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가 내세운 ‘상호작용기질모델’을 살펴보면 개인의 기질적 특성은 다른 사람들이 그에게 반응하는 방법에 영향을 주며, 유아의 기질적 특성은 다른 사람이나 사물에 반응하는 방법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이것은 기질과 환경이 서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으로서, 유아들은 아직 어린보다 사회적, 인간적 환경의 영향을 덜 받았기 때문에 서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며 자라면서 그에 따라 환경에 대처하는 방식이 달라져 성격과 행동에 개인차가 생기는 것으로 해석된다.<sup>6)</sup> 또한 이 연구에서 기질유형을 정서성, 활동성, 사회성의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정서성은 유아가 환경으로부터 자극에 대해 얼마나 빨리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내는가를 의미한다. 울음, 공포, 분노 등은 정서성 강도를 잘 보여주고 있는 지표로서 정서성이 높은 유아는 갑작스러운 소리에 놀라거나 잠에서 깨어나고, 큰소리로 우는 반응을 보인다. 활동성은 유아의 일상 활동의 강도와 속도를 의

5) J. Kagan & H. A. Moss, 「Birth to maturity」, New York : Wiley  
E. Schachter & N. Baylay,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28(3, Serial No. 87)

6) 다른 시점으로 이명숙의 ‘유아의 성·기질 및 인기도에 따른 또래 간 요구전략에 관한 연구’ (1998)논문에서는 A.H.Buss와 R.Plomin가 주장한 바는 기질이 환경과는 상관없이 비교적 변하지 않는 생래적, 유전적 특성으로 기술하고 있다.

미하는 것으로 활성이 좋은 유아는 계속 움직이거나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찾아다니며 격렬한 행동을 보인다. 마지막으로 사회성은 유아가 타인과 함께 있는 것을 선호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회성이 높은 유아는 혼자 있기를 싫어하며 낯선 이방인에게도 쉽게 다가가는 성향을 보인다.

McDeVitt와 Carey(1978)도 기질을 유아가 환경과 상호 작용하는 행동양식이라 정의했으며 기질과 환경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Rothbart와 Derryberry(1981)는 기질을 성격의 한 일부분으로 보았고 성격은 자아개념이나 기대 등의 인지적인 구조가 포함되나 기질은 반응성과 자기조절에 관한 행동경향으로서 개인에 있어 비교적 지속적인 특징이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유전, 성숙, 경험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정의하였다. 더 깊이 들어가면 기질을 과정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는데 기질은 반응성(reactivity) 과 자기조절(self-regulation)의 기본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성적인 개인적 차이라고 보았다. 여기에서 반응성이란 운동 활동, 미소와 웃음, 두려움, 고통과 같은 어떤 일에 대한 개인의 반응을 말하며, 자기조절이란 행동의 의도 또는 계획을 시도하고, 금지된 행동이나 상황에 대해 부적절한 행동을 의도적으로 억제하는 능력, 기다리고 유보하는 능력, 만족을 지연시키려는 능력, 자기관리 능력 등을 말한다. 하지만 Rothbart와 Derryberry가 밝히는 자기조절의 개념인, 다양한 사회적 상황에서 적응력 있고 융통성 있는 방법으로 외부의 자극에 대한 자신의 행동·사고·감정을 다루는 기질적 능력이라는 정의가 더 알려져 있다.<sup>7)</sup> 또한 자기조절은 반응의 강화 또는 억제하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주의조절(attentional regulation)과 자기진정(self-soothing), 접근과 회피 등을 포함시키고 있다.

또한 Rothbart은 기질모형을 제시하고 있는데 S. Chess와 A. Thomas의

---

7) 문연심, 「유아의 자기조절력에 관한 연구」, 강남대학교 인문과학논집, 제10집, 2001, pp. 24~26

모형을 토대로 하였다. 그는 Chess와 Thomas의 9개의 행동차원들 중에서 산만성과 주의범주를 반복되는 것으로 보고, 지속성으로 통합했기 때문에 Chess와 Thomas 모형과 비교하여 행동차원의 수가 적은 활동성, 미소짓기, 웃음, 지속성, 두려움, 안정성, 제지에 대한 반응의 6개의 차원으로 구성<sup>8)</sup>했다.

<표 1> Rothbart의 기질모형<sup>9)</sup>

행동차원	특 징
활동성	대근육 활동량
미소짓기 와 웃음	행복함과 즐거움의 표현빈도
지속성	과제지향과 과제에 대한 관심
두려움	강도 높은 자극이나 새로운 자극에 대해 긴장하거나 걱정하는 것
안정성	양육자가 달랠 때 소란 떨거나 울기를 멈추거나 걱정을 덜함
제지에 대한 반응	욕구 좌절 시 소란 떨거나 울고 고통스러움을 보임

J. J. Campos와 H. H. Goldsmith(1982)는 기질을 정서적인 측면에서 보았으며 분노, 두려움, 즐거움, 흥미-접근, 운동 활동 등과 정서적인 표현을 조

8) 윤운성·정정옥 공저, 「영아·유아·아동 발달심리」, 교육아카데미, p. 256.

9) M. K. Rothbart, 「Measurement of temperament in infancy: Child Development」 p.52., pp.569~578

직하는 구조로 설명하고 있다. 또한 M. E. Lamb과 C. Steinberg(1983)도 기질이란 정서적인 측면과 자극에 대한 행동적인 표현의 강하고도 순간적인 범위 내에서의 개인차를 의미하며, 이런 차이가 개인 내 그리고 개인간의 조직화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sup>10)</sup>

이 밖에 S. Kagan(1989)은 억압된 기질(inhibited temperament)<sup>11)</sup>을 가진 유아는 낯선 상황이나 사람에 대해 수줍어하거나 어색해하며 두려워하는 특징을 보이므로 일반적으로 까다로운 기질과 억압적 기질은 여러 가지 문제 행동과 관련된 것으로 보고, 부모-자녀 갈등의 원천으로 제안하기도 했다. 이런 이유는 타고난 부모의 기질과 유아의 기질적 차이에서 비롯한다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Lerner도 유아의 기질을 부모의 기질과 연관 시켜 조화 또는 양호한 적합성(goodness of fit)과 불량한 적합성(poorness of fit)의 모델을 제시했는데 유아와 부모가 얼마나 잘 관계하느냐, 양육자 (엄마 혹은 아빠)가 유아와 얼마나 잘 연결되며 부모 자식 양자의 기질적 특성을 얼마나 잘 고려하는가<sup>12)</sup> 하는 양육의 적정성(parental fit) 개념으로 기술하고 있다. 조화 또는 양호한 적합성이란 동기, 능력, 행동 스타일에서 부모와 유아가 잘 조화를 이루는 경우를 일컬으며, 불량한 적합성이란 부모와 유아가 심각한 부조화를 보이는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 발달의 왜곡과 부적응적인 기능을 보이기도 한다.<sup>13)</sup> Lerner도 Kagan와 마찬가지로 결론은 유아의 타고난 기질특성과 부

---

10) J.J. Campos, K.B. Caplovitz, M.E. Lamb, H.H. Goldsmith, C. Steinberg, 'Socioemotional development' In M.M Haith & J.J Campos,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 2. Infancy and developmental psychobiology」, pp.783~915 New York: Wiley

11) PsycheWorld 홈페이지, 「부모되기」  
[http://www.psycheworld.co.kr/study/family\\_08.html](http://www.psycheworld.co.kr/study/family_08.html)

12) MOM 114 홈페이지, 「내 아이의 기질과 성격 이해하기」  
<http://mom114.com/parants/3.asp>

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방법은 서로 잘 맞추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즉, 아기들은 기질적인 특성에 맞는 양육의 욕구를 갖기 때문에 이에 적합한 방법으로 아기의 적응을 도와야 한다는 것이다.

1990년대에 들어 과학자들은 성격유전자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성격유전자는 만족심, 공격성, 성격취향, 모험심 같은 사람의 성격을 결정하는 유전자로 성격 유전자가 만들어 내는 특성이 곧 기질이라는 것이 과학자들의 설명이다. 다시 말해 기질은 사람이 태어날 때 선천적으로 갖고 태어나는 생물학적, 화학적 특성이라는 것이다. 제롬 케인건 하버드대교수는 두뇌 속의 뉴런에는 각 분자에 대한 수용체가 있으며 사람들 간에 차이가 생기는 것은 그런 분자가 얼마나 농축되어 있느냐, 분자 수용체의 밀도차, 또는 수용체가 서로 다른 위치에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위치에 존재하는 수용체가 아이의 기분과 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이며 그런 것들이 바로 기질적 차이의 원인이라고 보았다. 케인건 박사는 기질 중에서도 특히 수줍음이라는 특성이 유전자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다는 것을 발견했다. 다양한 종류(아기의 눈앞에 모빌을 달아둔다)의 반응에 대해 어떤 아기는 별 반응을 나타내지 않는 반면 어떤 아기는 자극을 받으면 팔, 다리를 긴장시키며 반응한다. 여기에서 별다른 반응을 나타내지 않는 아기들을 수줍음의 정도가 낮은 아이로 분류했고 수줍음이 적다는 것은 사교성이 높다는 것을 뜻한다고 설명했다. 반대로 반응을 크게 한 아기들은 수줍음의 정도가 높은 아이 즉, 사교성이 낮은 아이들로 분류되었다. 그러나 이렇게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기질의 아이도 부모의 양육방식에 영향을 받게 된다고 한다.<sup>14)</sup>

---

13) 정신과 스트레스 홈페이지, 「인생의 주기 - 영유아기」  
[http://stress.pe.kr/life/life3\\_2.htm](http://stress.pe.kr/life/life3_2.htm)

이러한 연구는 미국 보스톤 브리검 여성병원에서도 이루어졌다. 이 병원의 의사들과 간호사들은 갓 태어난 신생아들이 동일한 자극에 다른 반응을 보이는 것에 주목했다. 옆에서 큰 소리를 내면 어떤 아기는 둔감한 반면 예민한 아기는 고개를 돌려 버린다. 또한 주위가 시끄러울 때 얼굴색이 변하는 것은 아기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증거라고 했다. 이렇듯 아기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저마다 독특하고 개성적인 반응을 나타낸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케빈 뉴전트 하버드의대교수는 딸랑이를 흔들어 소리를 냈을 때 어떤 아기들은 움찔하며 깜짝 놀라지만 또 다른 아기들은 그냥 자는 현상을 볼 수 있는데 반응하는 방법이 아주 다르며 이런 특성은 다양한 환경에서 나타난다는 점을 시사했다. 이런 딸랑이 소리에 도 깨지 않는 아기는 많은 사람이 있어도 웬만한 소리에 도 잘 자며 이런 아기는 좋은 수면 패턴을 형성할 수 있고 이것은 신생아에게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보았다. 하지만 이 딸랑이 소리에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는 아기는 더 많은 보호와 양육을 받아야 더 활기찬 아이로 자란다고 보았다. 더불어 이처럼 상반된 두 가지 반응에서 어느 것이 좋거나 나쁘다고 할 수 있는게 아니라 단지 자라면서도 서로 다른 방법으로 세상과 삶에 적응하는 것 뿐 이라고 단정지었다. 확실히 아기들은 태어날 때부터 자신만의 기질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어떤 아기들은 쉽게 달래지며 혼자서도 잘 진정하는데 이런 아기들은 집에 돌아간 후, 또 성장하면서도 순하게 자란다고 한다. 반면 많이 달래주고 다른 아기들보다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아기들도 있는데 이처럼 다른 아기들에 비해 동요가 심하고 잘 진정되지 않는 아기들의 경우는 대체로 부모의 관심을 더 필요로 하는 까다로운 아이로 자라나게 된다며 경

---

14) EBS, 특집/다큐멘터리, 기획다큐 - 아기성장보고서 : 제 5부 육아의 키워드 - 기질, 2003년 1월 3일 방송분,

다시보기 (<http://www.ebs.co.kr/Broadcast/TVMain.asp?category=001>)

험에서 나온 사실을 밝혔다.<sup>15)</sup>

## 2. S. Chess와 A. Thomas의 기질론

철학자이며 근대 경험론의 대표자인 J. Locke는 인간이 태어날 때의 정신을 ‘타블라 로사’(tabula rasa)라는 말로 표현했다. tabula rasa란 백지라는 뜻이다. 즉, 경험론자들은 유아들은 백지 상태(tabula rasa)에서 태어나며 아이의 정신세계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전적으로 후천적인 교육, 경험, 환경 등에 따라 결정된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므로 타고난 기질이란 것 역시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J. J. Rousseau는 조금 더 발전한 견해를 제시했다. 아이들은 비어있는 그릇이 아니라 자신들의 고유한 사고방식과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sup>16)</sup> 이후의 여러 연구를 통해 현재의 발달에 대한 개념이 정립되었는데 근래에 들어와서야 주목을 받고 있는 S. Chess와 A. Thomas부부의 기질론이 그중 하나이다. 하지만 이들의 연구는 1950년 때 이미 이루어졌지만 반세기 전까지만 해도 이러한 연구는 학계에서 인정을 받지 못했다. 오히려 Chess와 Thomas는 당시 ‘결정론자’라는 낙인이 찍혔다.<sup>17)</sup> 그러나 현장에서 현장을 다루는 의사들과 학자들은 앞에서 보았듯이 이 제 이들의 주장에 대해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

생후 초기부터 인간은 뚜렷한 개인차, 이것을 ‘기질’이란 개념으로 설명한 사람이 Chess와 Thomas 부부였다. 소아과 의사이기도 했던 그들은 진료경

---

15) EBS, 특집/다큐멘터리, 기획다큐 - 아기성장보고서 : 제 5부 육아의 키워드 - 기질, 2003년 1월 3일 방송분,

다시보기 (<http://www.ebs.co.kr/Broadcast/TVMain.asp?category=001>)

16) 소아청소년 정신건강 클리닉 홈페이지, <http://drchoi.pe.kr/develop1.html>

17) Jeffrey Kluger, 「Preventive Parenting :Paying attention to a baby’s unique personality may head off problems before they happen」, TIME, Jan. 21, 2002 - Jan. 27, 2002

험을 바탕으로 1956년 시작된 뉴욕종단연구(New York Longitudinal Study)에서 출생부터 모든 영유아들에게 개인차가 있음을 발견하고 그러한 개인차가 성장을 하여도 계속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연구를 하기 시작했다.

1977년 Chess와 Thomas는 아이의 자동적인 반응성과 기질에서 영유아간의 출생 시 폭넓은 범위가 있다고 주장하며 9가지의 행동학적인 차원으로 구분하여 설명했다. 활동성(activity-level), 규칙성(rhythmicity), 산만성(distractability), 접근-회피(approach-withdrawl), 적응성(adaptability), 주의범위와 지속성(attention span and persistence), 반응의 강도(intensity of reaction), 반응역(threshold of responsiveness), 기분의 질(quality of mood)이다.<sup>18)</sup>

- 1) 활동 정도(activity-level) : 유아가 깨어 있을 때의 다양한 활동에 대한 활동성과 비활동성의 비율과 운동요소, 적절한 활동성.
- 2) 규칙성(rhythmicity) : 배고픔 배설, 수면, 수유양상, 깨어나기 등 생리적인 기능의 어느 정도 예측적인 리듬성.
- 3) 접근-후퇴(approach-withdrawl) : 새로운 자극(음식, 장난감등)과 낯선 사람에게 대해 좋아하고 다가가는지, 울며 피하는지에 대한 유아의 반응양상.
- 4) 적응성(adaptability) : 환경 변화에 반응하여 행동이 얼마나 빨리, 쉽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하며 적응하는가.
- 5) 반응 역치(threshold of responsiveness) : 뚜렷한 반응을 유발해 내는데 필요한 자극의 정도 즉, 아이가 그 반응을 나타내는 것이 어느 정도의 자극에서인가.
- 6) 반응의 강도(intensity of reaction) : 바람직한 방향이나 바람직하지 않

---

18) Thomas, Chess & Birch, 「The origins of personality : Scientific American」 pp. 102~109.

은 방향 등 방향에 상관없이 나타나는 유아의 세기나 강도와 감정 표현에 사용하는 에너지의 양. 예를 들면 울어도 크게 우는 아이가 있고 반대로 작게 흐느끼는 정도로 그치는 아이가 있다.

- 7) 기분의 질(quality of mood) : 기쁨, 즐거움, 다정한 표현정도, 울음, 짜증과 같은 기분의 상태.
- 8) 산만함(distractability) : 외부의 자극이 어느 정도에서 현재하고 있는 활동을 방해하는가. 즉, 진행 중인 행동으로 얼마나 쉽게 이탈 할 수 있는가.
- 9) 집중력과 지속력(attention span and persistence) : 특정한 행동의 진행되는 시간과 방해를 받았을 때 활동에 집중 할 수 있는 기간과 방해물이 있을 때 하던 행동을 지속할 수 있는가.

하지만 이 행동절차 등은 행동의 내용이 아닌 행동방식에 기본이 되는 내적인 속성일 뿐이라 하였다. 그들은 이 연구에서 그치지 않고 활동 정도, 규칙성, 접근-후퇴, 적응성, 반응 역치, 반응의 강도, 기분의 질, 산만함, 집중력과 지속력을 내용으로 하는 질문지로 더 깊은 연구를 했다. 여기에서 질문지는 Chess와 Thomas가 뉴욕종단연구에 참여했던 3~7세 자녀를 둔 148명의 부모들에게 각 기질범주의 특성에 대한 인터뷰를 통해 부모용 기질검사도구(Parent Temperament Questionnaire for Children 3~7 Years of age)를 개발한 그것이다. 미국 영유아들을 대상으로 부모에게 면접을 통한 유아의 기질연구를 실시한 이 부모용 기질검사도구는 총 72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문항마다 1점에서 7점까지의 점수를 매겨 상위 점수를 받은 집단, 중간 점수를 받은 집단, 하위 점수를 받은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11. 지나치게 시끄러운 음악이나 소리에 대해 불평을 하지 않는다.(시끄러운 소리에 무감각한 편이다)	1	2	3	4	5	6	7
12. 자기가 선택한 옷을 못 입게 해도 별 군소리 없이 엄마의 선택에 따른다.	1	2	3	4	5	6	7
13. 매일 거의 같은 시간에 간식을 달래거나 먹는다.	1	2	3	4	5	6	7
14. 하루 동안 일어나 일에 대해 즐겁게 이야기 하는 편이다.	1	2	3	4	5	6	7
15. 다른 사람의 집을 두어번 방문하고는 이내 친숙함을 느낀다.	1	2	3	4	5	6	7
16. 어떤 일에 화가 나면 집어던지고, 울고, 소리 지르고, 혹은 문을 팡 닫는다.	1	2	3	4	5	6	7
17. 시장을 보는 도중에 장난감이나 사탕을 원할 때 대신 다른 물건을 사주면 쉽사리 받아들인다.	1	2	3	4	5	6	7
18. 집안에서나 집밖에서 가만히 걸어다니지 않고 요란하게 뛰어다닌다.	1	2	3	4	5	6	7
19. 부모와 함께 장보러 가는 것을 즐거워한다.	1	2	3	4	5	6	7
20. 밤에 잠자리에 든 후에 매일 거의 같은 시간에 잠이 든다.	1	2	3	4	5	6	7
21. 새로운 음식을 먹어보기 좋아한다.	1	2	3	4	5	6	7

22. 엄마가 바빠서 아이가 원하는 것을 해줄 수 없을 때는 엄마를 쫓아다니지 않고 혼자서 다른 일을 한다.	1	2	3	4	5	6	7
23. 색깔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한다.(예를 들어 예쁘다든가 밍다고 말을 한다.)	1	2	3	4	5	6	7
24. 놀이터에서 놀 때, 뛰고, 기어오르고, 매달리는 등 설새 없이 움직인다.	1	2	3	4	5	6	7
25. 머리 깎기, 빗질, 목욕 같은 것을 한번 거절하기 시작하면 그 고집이 최소한 몇 개월은 간다.	1	2	3	4	5	6	7
26. 좋아하는 장난감을 가지고 놀 때 옆에서 큰 소리가 나거나 일이 생기면, 이를 무시하거나 겨우 잠깐 쳐다보는 정도이다.	1	2	3	4	5	6	7
27. 정말로 좋아하는 놀이를 못하게 막아도 약간만 때를 쓰거나 잠시 우는 정도로 그치는 편이다.	1	2	3	4	5	6	7
28. 부모가 아동과 약속을 하면, 그 약속에 대해 잊지 않도록 계속 물어본다.	1	2	3	4	5	6	7
29. 다른 아이들과 놀면서 자주 다툰다.	1	2	3	4	5	6	7
30. 공원이나 낯선 곳에 가서도 처음 보는 아이들과 금방 어울린다.	1	2	3	4	5	6	7
31. 매일 자는 시간이 불규칙적이어서 어느 날은 많이, 다른 날은 적게 잔다.	1	2	3	4	5	6	7
32. 음식이 뜨겁거나 차가운데 대해 별로 상관하지 않는다.	1	2	3	4	5	6	7

33. 낯선 어른 앞에서 잠시 부끄러워하다가도 곧 (대략 30분 이내에)친숙해 진다.	1	2	3	4	5	6	7
34. 동화를 들려주거나 노래를 불러주면 가만히 앉아서 듣는다.	1	2	3	4	5	6	7
35. 부모가 꾸짖거나 야단을 칠 때 크게 울거나 소리를 지르는 등 심하게 반항하기보다는 흐느낀다든지 약하게 불평하는 정도로 끝난다.	1	2	3	4	5	6	7
36. 어떤 일로 화가 나면 마음을 다른 곳으로 돌리게 하기가 어렵다.	1	2	3	4	5	6	7
37. 새로운 운동(뽀뽀기, 자전거 타기 등)을 배우게 되면 오랫동안 거기에 몰두한다.	1	2	3	4	5	6	7
38. 배고파하는 시간이 매일 일정하지 않다.	1	2	3	4	5	6	7
39. 빛의 밝고 어두운 변화에 매우 민감하다.	1	2	3	4	5	6	7
40. 부모와 함께 집을 떠나 다른 장소에 가면 며칠씩이나 새로운 잠자리에서 잠을 이루지 못한다.	1	2	3	4	5	6	7
41. 빨리 형님반이 되기를 고대한다.	1	2	3	4	5	6	7
42. 가족과 여행을 가면 곧 새로운 환경에 적응한다.	1	2	3	4	5	6	7
43. 시장에 데리고 갔을 때 자기가 원하는 사탕, 장난감, 옷 등을 사주지 않으면 크게 울고 떼를 쓴다.	1	2	3	4	5	6	7
44. 기분이 상하면 달래기 힘들다.	1	2	3	4	5	6	7

45. 날씨가 나빠서 집안에 있어야 할 때, 가만히 있지 못하고 온 집안을 헤집고 다닌다.	1	2	3	4	5	6	7
46. 우리 집을 방문한 낯선 어른에게 접근하며 쉽게 친해진다.	1	2	3	4	5	6	7
47. 매일 먹는 음식의 양이 같지 않아서, 어떤 날은 많이 먹고 어떤 날은 거의 먹지 않는다.	1	2	3	4	5	6	7
48. 장난감이나 게임이 어려우면 곧 포기하고 다른 놀이를 한다.	1	2	3	4	5	6	7
49. 집안이나 집밖에서의 온도차에 별로 상관하지 않는다.	1	2	3	4	5	6	7
50. 자기가 좋아하는 장난감이나 놀이가 망쳐지면 많이 속상해 한다.	1	2	3	4	5	6	7
51. 유아원, 유치원 등 새로운 상황에 처하면 며칠이 지나도록 불안해한다.	1	2	3	4	5	6	7
52. 아이가 싫어하는 일(손톱 깎기, 머리 빗기 등)이라도 텔레비전을 보게 하거나 즐겁게 해주면 쉽게 응한다.	1	2	3	4	5	6	7
53. 영화, 운동경기, 긴 TV프로그램 등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가만히 앉아서 본다.	1	2	3	4	5	6	7
54. 자기가 싫어하는 옷을 입히려 하면 심하게 반항하고 소리 지르며 울어댄다.	1	2	3	4	5	6	7
55. 주말과 휴일에도 다른 날과 거의 같은 시간에 깨워주지 않아도 일어난다.	1	2	3	4	5	6	7

56. 다른 아이와 다투거나 일이 잘 안되면 집에서 부모에게 그 아이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한다.	1	2	3	4	5	6	7
57. 옷이 꼭 끼거나, 어디가 가렵다든가, 불편한 데 대해서는 몹시 예민하여 곧잘 불평을 터트린다.	1	2	3	4	5	6	7
58. 화가 나더라도 금방 풀어진다.	1	2	3	4	5	6	7
59. 매일의 일과에 변화가 생길 때(유치원에 갈 수 없는 등), 쉽게 새로운 일과에 따른다.	1	2	3	4	5	6	7
60. 놀이터나 공원 등 집밖에 나가서도 장난감이나 인형을 가지고 조용히 논다.	1	2	3	4	5	6	7
61. 다른 아이가 자기의 장난감을 빼앗아 가도 크게 반항하지 않는다.	1	2	3	4	5	6	7
62. 처음으로 엄마 없이 혼자 새로운 상황(유치원, 음악학원 등)에 남게 되면 당황해 한다.	1	2	3	4	5	6	7
63. 뭔가를 가지고 놀기 시작했을 때, 그것을 중단시키고 그의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게 하려면 상당히 애를 먹는다.	1	2	3	4	5	6	7
64. 점토놀이, TV보기, 책읽기, 그림책보기 등 비교적 조용한 놀이를 좋아한다.	1	2	3	4	5	6	7
65. 게임에 졌을 때 쉽게 화를 낸다.	1	2	3	4	5	6	7
66. 새 옷 보다 입던 옷을 좋아한다.	1	2	3	4	5	6	7
67. 옷이 더러워지거나 젖게 되더라도 별로 개의치 않는다.	1	2	3	4	5	6	7

68. 우리 집과 규칙이 다른 가정의 규칙에 적응하는 것을 어려워한다.	1	2	3	4	5	6	7
69. 어떤 일이 생기면 크게 흥분하지 않고 덤덤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다.	1	2	3	4	5	6	7
70. 식사시간이 한 시간 이상 늦어지더라도 보채지 않고 가만히 기다린다.	1	2	3	4	5	6	7
71. 한참 졸라대다가도 무엇인가 다른 일이 주어지면 조용해진다.	1	2	3	4	5	6	7
72. 과제를 하는데 도와주려 해도 자기가 하던 방식대로 계속한다.	1	2	3	4	5	6	7

<표 3> 각 기질 범주별 구성문항 배점표

기질 범주	A				B			
	1.	2.	3.	4.	5.	6.	7.	8.
활동 정도	18.	24.	45		34.	53.	60.	64
규칙성	6.	13.	20.	55	31.	38.	47.	70
접근-후퇴	21.	30.	42.	46	4.	10.	62.	66
적응성	7.	15.	33.	59	25.	40.	51.	68
반응 역치	11.	32.	49.	67	3.	23.	39.	57
반응의 강도	8.	16.	43.	54	27.	35.	61.	69
기분의 질	2.	14.	19.	41	29.	50.	56.	65
산만함	9.	17.	52.	71	26.	36.	44.	63
집중력과 지속력	5.	28.	37.	72	12.	22.	48.	58

- A 에 속하는 문항들은 1점부터 7점까지의 순서로 배점됨.
- B 에 속하는 문항들은 7점부터 1점까지의 순서로 배점됨.

이렇게 기질검사도구로 점수를 매긴 뒤 Chess와 Thomas는 각 기질영역 점수를 가중치 점수로 환산하였다. 이 점수를 바탕으로 기질유형을 분류하였는데 여기에서 세 가지의 특성을 가진 기질유형을 알아냈다. 순한 기질(easy temperament), 까다로운 기질(difficult temperament), 반응이 느린 기질(slow-to-warm-to temperament)이 바로 그가 밝혀낸 세 가지 기질유형이다.<sup>19)</sup>

순한 기질(easy temperament)의 아이는 40%를 차지하며, 수유, 배설, 수면 등의 생리적인 습관이나 일상 생활습관이 규칙적이며 리듬성을 가지고 있으며 낯선 환경에 대한 적응력이 높고 낯선 사람에게도 두려움 없이 잘 다가간다. 또한 새로운 경험에도 쉽게 적응하며 새로운 음식에도 큰 거부감 없이 잘 받아먹는다. 정서상태도 대체로 안정적, 긍정적이다. 행복한 기분이 지배적이며 쉽게 좌절하지 않는 경향을 보였다. 까다로운 기질(difficult temperament)의 아이는 연구대상의 10%에 속하고 있는데 생리적인 기능이 불규칙적이며 변화에 대해 울음이나 저항 등 후퇴 반응을 보인다. 낯선 사람을 보며 피하고 새로운 음식은 뱉어내기도 한다. 또한 기분 표현도 강하게 하는 편이다. 반응이 느린 기질(slow-to-warm-to temperament)의 아이는 15%의 범주에 속하며 생리적, 일상 생활습관은 순한 기질의 아이보다는 불규칙적이지만 까다로운 기질의 아이보다 규칙적이나 환경에 대한 적응이 늦고 낯선 사람이나 사물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낯선 음식에 대해서는 뱉어내지는 않으면서 먹지도 않는 반응 강도에 약함을 드러냈다. 활동량도 적고 새로운 자극에 대한 적응이 느리고 어려워하기 때문에 반복적인 접촉이 필요했다.

이 연구결과에서 밝혀진 세 가지 기질유형 중 까다로운 기질의 아이는 부모

---

19) 윤운성·정정옥 공저, 「영아·유아·아동 발달심리」, 교육아카데미, p. 255.

가 다루기 힘들어하는데 실제로 뉴욕 종단연구에서 까다로운 기질에 포함된 유아는 70%가 학교나 단체생활을 하는데 문제행동을 보였다고 한다. 그것은 순한 기질의 아이나 반응이 느린 기질의 아이보다 적응상의 문제와 환경에 대한 강한 반응이 문제가 되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그리고 반응이 느린 기질의 아이는 부모들이 유아시절에는 키우기 쉬워하고 별다른 문제도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부모의 관심도 까다로운 아이보다 적게 받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뉴욕 종단연구에서 50%가 학교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하는데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데 그것은 환경의 적응력이 느리고 어려워하기 때문에 능동적, 적극적인 빠른 적응을 요구하는 또래집단에서 문제가 크다고 한다.

이렇듯 Chess와 Thomas의 기질에 대한 연구는 출생 시부터 보이는 유아들의 행동차이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하여 유아들의 기질을 미리 안다면 양육하는데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까다로운 아이 같은 경우 어떤 부모가 키워도 힘들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유아의 기질을 빨리 파악하여 그에 맞는 양육을 함으로써 유아가 나중에 겪을 문제를 조금이라도 줄여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요지이다.

### Ⅲ. 영유아(嬰幼兒)와 색채관계의 이론적 배경

#### 1. 색채의 개념

색채는 색과 구별하여 다른 의미를 지닌다. 일상적으로 색과 색채는 개념을 명확하게 구별하지 않고도 그 의미를 이해하고 설명하는데 큰 불편을 느끼지 않았지만 이들 개념을 과학적, 객관적 체계 아래 정확한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인간 시각의 특성 중 하나는 일반적으로 ‘색’으로 말해지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머릿속에 ‘색’으로 떠올리는 것이 전부 색이 아니다. 화학에서는 색이 염료이며 색소이다. 물리학에서는 색을 분광적 조합이라고 한다. 정신 물리학에서 색은 물리적 자극물이며 특히 물리적 크기의 개념일 뿐인 것이다.<sup>20)</sup> 이렇듯 물질적 존재들 중에서도 특히 눈이라는 감각기관을 통해서 확인되는 물질세계를 일컫는 것이 일반적인 의미에서 색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색채학에서 일컫는 색은 ‘시각 대상으로서의 물질적 대상인 빛과 지각현상’이라고 정의될 수 있다. 이러한 색의 개념에 비해서 색채는 ‘물리적 현상으로서의 색이 감각기관인 눈을 통해서 지각되거나 그와 같은 지각현상과 마찬가지로 경험효과를 가리키는 현상’으로 정의 될 수 있다. 다시 말해 색이 일반적으로 물리적 현상임에 비해서, 색채는 심리적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

20) Morton Walker, 「The Power of Color」, 교보문고, 1996, p.49

## 1) 색채의 물리적 배경

색채는 시지각의 일종으로 생리학적으로 볼 때 빛이 인간의 감각기관을 통하여 일어나는 주관적인 감각이라고 보며 그 대상 자체에 있는 고유의 성질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빛이 없는 어둠 속에서 색을 볼 수 없는 것은 실제적으로 색이 없기 때문이다.

물체의 색은 그 자체가 색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빛을 어떤 비율로 반사시키고 흡수시키는가에 의해 결정된다. 이러한 빛의 파장과 굴절에 대한 색의 물리학적 연구는 I. Newton에 의해 시작되었다. 1622년 Newton은 빛이 차단된 방안에 작은 구멍을 뚫은 후 그 앞에 프리즘을 놓고 관찰한 결과 구멍을 통해 들어온 태양빛 줄기가 반대편 벽을 향해 굴절되어 태양빛 색채의 잔영이 형성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sup>21)</sup> 구멍을 통해 들어 온 백색광은 유리프리즘에 의해 굴절되어 일련의 다른 색들로 투사되어 무지개처럼 연속된 일곱 색의 파장으로 나타난다. 파장이 짧을수록 굴절이 커지고 파장이 길수록 굴절은 작아진다. 단파장에서 장파장으로 옮겨감에 따라 색광은 보라, 파랑, 노랑, 주황, 빨강에 이르는 색감을 불러일으킨다. 이렇게 스펙트럼으로 분해된 각 색은 더 이상 분해 될 수 없는 단색이며 이렇게 분리된 일곱 색의 광원을 거꾸로 놓은 프리즘에 통과시키면 광원은 다시 합성되어 백색광으로 복원된다. 이 밖에도 광선의 간섭 회절, 편광, 형광들에 물리학적 색광을 만들 수는 있다.

## 2) 색채의 심리학적 배경

색채는 물체를 파악하는 서로 다른 시각과 자연과학, 색채 이론 기술학,

21) 한국색채연구소, 「컬러리스트」, 지구문화사, 2003, p.12

철학, 생물학, 의학, 심리학, 인간공학 등을 포함한다. 색은 백색광이 물체에 투사되어 눈에 보이는 색을 제외한 모든 빛을 흡수하여 나타나게 된다. 그것은 눈으로 보고 뇌로 해석되어 각각의 색에 대한 다른 느낌을 받는다. 눈은 색채를 보지만 우리는 대뇌에 의해서 색을 느끼고 해석한다. 즉, 색은 다양한 심리학적인 반응이 일어날 때 비로소 지각되는 것이다. 대뇌에는 색채에 대한 우리의 경험과 인상, 많은 지식들이 저장되어 있다.

특히 심리적 요인은 각 개인이 받는 심리적인 색채 반응을 규명하는 것으로서 이 반응에는 개개인의 주의, 기억, 감정 등의 성향이 작용하게 된다. 그것은 색채가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시각적인 전달만이 아니고 색채가 우리들의 가장 의미 깊은 감성적인 감각과 동일하기 때문이다.

## 2. 영유아와 색채

### 1) 영유아의 색채교육

아이들은 색을 자연스럽게 표현한다. 색채학자들은 색채는 그림으로 나타나는 어떤 단순한 양상보다도 아이의 정서적 생활의 본질과 그 정도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특별한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그래서 유아들은 형태보다 색채에 더 민감해서 순수한 즐거움으로 색을 즐긴다고 설명하기도 한다.

유아들의 경험은 성인에 비해 제한적이고 주어진 환경에 즉각적이고 감정적인 반응을 나타내기 쉽다. 즉 제한적인 경험의 자기 범주 안에서만 모든 것을 생각하고 행동한다. 따라서 유아들에게 주어진 환경이라는 것은 그들의 성장에 어떤 식이로든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그림 속에서 그들의 정서

생활의 성질이나 그 표출의 심리가 특히 잘 반영되는 것이 색채이다. 그림 속에 나타나고 있는 특징적인 색채는 그때의 유아들의 심리와 거의 일치한다. 예를 들면 다른 아이에 비해 충동적인 유아는 유별나게 색채에 강한 반응을 보이는데 충동적이고 정서적인 생활로부터 비교적 자기 통제가 잘 되는 과정 즉, 적응 행동으로 변화해감에 따라 색채에 대한 흥미가 줄어든다. 남아에 비해 여아들이 색채에 관한 흥미가 더 강하고 지속되기도 한다. 또한 색채에 관심이 많은 유아에 비해서 선이나 형태에 더 많은 관심을 나타내는 유아들은 자기 방어를 하려는 경향이 짙으며, 외부의 사물에 대한 관심이 강하며 감정적이기보다는 지적인 행동을 보이는 경향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것으로 색채는 성격과 감정에 깊은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속에 나타나는 색채는 유아들의 당시의 정서와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그림에 표현된 색채는 지극히 개인적이다.<sup>22)</sup> 그러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색채의 사용이 주관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다른 그림을 모방하거나 색의 감정이 없고 획일적이고 기계적으로 칠하여 놓은 느낌을 주는 그림들을 흔히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어른들로부터 주입된 고정관념이 유아에게 오랫동안 잔존하여 표현되므로 어른들의 그릇된 색채교육에 의해서 나타나는 병폐라 할 수 있다. 그 예로 이름을 빨간색으로 적으면 불길한 징조라고 여기고 있거나 여아의 옷은 붉은 계통, 남아의 옷은 푸른 계통으로 칠해야 하며 하늘은 파랗고 태양은 늘 붉은색으로 칠해야 한다는 고정된 생각을 유아들 자신도 모르게 가지고 있다. 이것은 유아들의 어른들에 의해 감정과 정서가 배제될 수밖에 없음을 잘 나타내고 있는데 그림 활동 중 색채의 표현이야말로 그들의 심리상태를 잘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간과한 까닭이다.

도식적 색채란 어떤 사물에 대한 관념적인 색채로, 같은 대상에 같은 색을 반복해서 칠하는 것을 말한다. 유아들은 미분화과정에서 분화상태로 전

22) 김재은, 「그림에 의한 아동의 심리진단」, 교육과학사, 1998, p.103

환되어 가는 과정에서 대상과 가까운 색채를 자기 나름대로 지각하고 사용하는데 여기서는 색채를 도식적으로 사용했는지, 아니면 사실에 가까운 색채를 사용했는지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다. 사실적 색채란 도식에서 벗어나 혼색을 사용해서 사실에 가깝게 표현하는 것이며 때로 단색 사용에서 혼색 사용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단색일지라도 물의 양을 적절히 조절하여 사실적 느낌을 보여주기도 한다.

유아들은 바탕색을 언제나 꼼꼼하게 채우도록 하는 교육을 받기도 하는데 그런 유아들은 무조건 빈틈없이 색칠해야 하며, 또한 바탕색은 주로 노랑, 연두, 하늘색의 중간색이 대부분이 사용되어지는 개념화를 그리기도 한다. 특히 유치원이나 어린이집과 같은 곳에서 교육을 받은 유아의 경우 사물에 대한 특정색을 반복 사용하고, 공식화된 색이 단순하게 칠해지기도 하며 색채의 감정변화를 느낄 수 없는 그림을 그리기도 한다.

영유아기에 색채가 주는 반응은 압도적이라 할 수 있다. 그 색채들이 유아들에게 연상을 가져다주고, 정서적인 면을 조성하는 것이 확실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중요한 시기에 색채에 대한 유아들의 정서, 감정적인 면을 저해시키지 않는 교육이 절실히 요구되어진다.

## 2) 색채가 영유아에게 미치는 영향

근본적으로 색채의 중요성은 단순히 시각전달만이 아니라 감성적인 감각 (sense about feeling)과 같기 때문이다. 아동의 인지적, 정서적 능력의 발달에 색채는 상당한 관련성을 지니고 있다.

앞서 말했듯이 유아들의 감정생활이나 정도를 이해하는 단서는 선이나 형태보다 색채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색채는 인간의 내재적 현상

과 깊은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음은 분명하지만 유아와 관계를 밀착시켜 논한다는 것은 지극히 위험스럽다.<sup>23)</sup> 이렇듯 유아의 감정상태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색채에만 커다란 비중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한 견해도 있긴 하지만 그들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색채가 갖는 의미는 무시할 수 없는 부분임은 확실하다.

영유아의 정서적, 지적 발달은 끊임없는 환경과의 접촉에서 일어난다고 할 수 있으며 환경에는 여러 요소가 있지만 유아들이 접하는 모든 사물이 색채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색채가 갖는 영역은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신체의 기관은 밝은 빛을 받았을 때, 어두운 빛을 받았을 때보다 더 빨리 반응한다’<sup>24)</sup>라는 말에서도 색채가 지니고 있는 감정과 정서는 활발한 외부와의 접촉이 시작되면서 신체적, 정신적 성숙을 키워나가는 유아들에게 있어서는 더 예민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인간은 성인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환경과 접촉하게 된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개개인마다 색채에 대한 감정에 차이가 일어나며, 선호경향도 각양각색으로 복잡한 경향을 띄게 된다. 이러한 결과는 내재적인 경험의 축적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빨강, 노랑 등은 난색계열로 파랑, 초록 등을 한색계열로 일컫는데, 본래 온도에 대한 우리의 경험을 가리키는 한(寒), 난(暖)이라는 색채가 가지는 표현적 특질을 나타내고 있듯이, 우리의 경험과 색채 사이에는 대단히 가까운 유사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영유아들은 성인과 비교하여 그들이 접할 수 있는 환경이 매우 편협함은 물론, 사고 수준도 성인에 미치지 못한다. 일반적으로 유아들은 원색 또는 순색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대개의 유아들이 명도, 채도가 높은 강렬한 색채를 선호하는 주된 이유는 색채에 대한 다양한 감정을 가지지 못함으로 인해 시

23) 김정, 「유아미술 입문」, 일지사, 1978, p.119

24) 파버 비렌, 김화중 옮김, 「색채심리」, 동국출판사, 1993, p.185

각을 통하여 신체에 대한 반응하는 속도가 빠른 원색(순색)을 먼저 인지하기 때문이다.

색채에 대한 감정은 유아의 개성과 그때의 감정, 유아들의 지각과 경험에 의해서 달라진다. 이에 일본학자 아사리는 ‘색의 감정이나 이미지는 인간마다 복잡한 경험에 의한 것이므로 하나로 단정하기는 힘들다고 전제하고 대체로 나이가 어릴수록 원색계통을 좋아하며 일반적인 개념은 어른과 비슷하다.’<sup>25)</sup> 이처럼 유아들이 색채에 대한 감정이 다양하지 못하고 아름다움에 대한 안목이 충분히 개발되어 있지는 않더라도 어떤 색에 대한 선호가 우연히 생겨나지 않는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해 색채는 인지적인 면에서 유아들에게 깃발이나 교통신호등처럼 상징적인 의미의 정보전달 기능을 갖고 있고, 정서적인 면에서는 유아들에게 심리적 연상작용으로 분위기와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 3. 영유아의 색채인지 발달단계와 색채선호도

아기가 태어나면서 느끼는 첫 흥미로는 감촉, 밝기, 움직임 들 세 가지가 있다. 그 후 2개월에서 3개월이 지나면 점차 색채 식별 능력이 갖추어진다. 유아는 생후 12개월이 지나면서 색채 지각반응이 나타난다고 한다. 그 이전에도 색채에 대한 약간의 반응이 있기는 하지만 24개월이 지나면서 좋아하는 색에 대한 강한 반응이 시작된다.

---

25) 유아미술연구회, 「유아미술교육」, 학문사, 1995, p.136

## 1) 연령별 영유아의 색채의식의 발달단계와 특징<sup>26)</sup>

우리의 아동들은 색을 자연스럽게 사랑하고 표현한다. 색채 학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색채는 그림으로 나타나는 어떤 단순한 양상보다도 어린이의 정서적 생활의 본질과 그 정도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특별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라고 하였다. 아동은 형태보다는 색채에 더 민감해서 순수한 즐거움으로 색을 즐긴다. 그러나 그들은 나이가 들어 갈수록 감정을 자제할 줄 알고, 수양을 쌓아감에 따라서 색은 그들에게 점차 그 본래의 호소력을 다소 상실하게 될 수 있다.

물론 단계별로 다르겠지만 유아동의 경험은 성인에 비해 제한적이고 주어진 환경에 즉각적이고 감정적인 반응을 나타내기 쉽다. 즉 제한적인 경험의 자기 테두리 안에서만 모든 것을 생각하고 행동한다. 따라서 아동들에게 주어지는 환경이라는 것은 아이들의 성장에 크고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유아동의 그림 속에서 그들의 정서 생활의 성질이나 그 표출의 심리가 특히 잘 반영되는 것이 색채이다. 그림 속에 나타나고 있는 특정 색채는 그때의 유아동의 강한 정서와 거의 일치한다. 충동적인 아동은 색채에 강한 흥미를 보인다. 충동적이고 정서적인 생활로부터 비교적 자기 통제가 잘 된 생활로 옮겨감에 따라 즉, 적응 행동으로 변화해감에 따라 색채에 대한 흥미가 줄어든다.

남자 아동에 비해서 여자 아동들이 색채에 관한 흥미가 강하고 또 오래 지속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색채에 관심이 있는 어린이에 비해서 선이나 형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는 아동은 자기 방어를 하려는 경향이 강하고 또, 외부의 사물에 대한 관심이 강하며 감정적이라기보다는 이지적인 행동을 보이는 경향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따라서 색채는 성격과 감정의 조절과

<sup>26)</sup>도서출판예서원, 미술아닷컴 홈페이지, <http://www.misoola.com/html/p4/p4-6.htm>

깊은 관계가 있다.

외국의 한 연구에서는 아동들은 자신이 선호하는 색의 환경에서 작업을 할 때 최상의 결과를 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6~만11세의 아동들에게 4가지 색(빨강, 파랑, 녹색, 노랑)의 환경을 제시하고 그 중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색과 선호하지 않는 색을 선택하게 했다. 그 후 가장 좋아하는 색의 환경에서 한 그들의 과제와 가장 선호하지 않는 색의 환경에서 한 그들의 과제를 비교해 보았다. 그 결과 아동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색의 환경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과제들을 더 짧은 시간 내에 끝낼 수 있었고, 과제를 실행하는 중 실수하는 횟수 또한 더 적었다. 따라서 아동들의 인지발달과 운동발달은 색의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로 미루어 볼 때, 학습 자료를 제작하고 학습활동을 실시 할 때 아동들이 선호하는 색을 고려한다면 그 효과가 상당한 결실을 가져올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증거가 되었다.<sup>27)</sup>

유아 또는 아동에게 색채가 주는 반응은 성격에 따라 매우 민감하게 반응이 나타난다는 것은 이미 여러 연구에서 증명되었으며 색채들이 아이들에게 연상을 주거나 정서적인 면을 조성하는 것은 교육환경 전반에 걸쳐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아이들이 접할 수 있는 색채는 정서적인 고양도 중요하지만 가깝게는 교육환경의 설정과 생활전반에 걸친 다각적인 면에서 계획되어야 한다.

---

27) Cockerill, I. M., and Miller B. P. Children's Colour Preferences and Motor Skill Performance with Variation in Environmental Colour. *Perceptual and Motor Skills*, 56, pp.845-846. 1983.

### ① 무의식·유희 시기(만 2~3세)

이 시기에는 어떠한 의도 없이 손의 근육운동과 그 결과로 생긴 선들을 발견하고 즐기는 자기표현의 첫 단계이다. 유아들의 낙서는 단계적으로 무질서한 근육운동에서 점차적으로 수평, 수직, 혼합형, 원형 순으로 발전하게 된다. 무의식·유희시기에는 이러한 낙서 그림이 많이 보여 지는데 이를 단순히 낙서로만 볼 것이 아니라 최초의 자기표현으로 보아야 한다.

그림의 형태는 아직 분명하지는 않으나 시각 기능의 역할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되어 간다. 즉, 유아의 유희 본능으로 이루어지던 그림은 점차 생각할 수 있는 이미지 표현으로 의미를 부여하려는 상징적 활동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 시기의 그림을 잘 관찰해 보면 점묘착화, 원형착화, 혼교착화, 파형착화 등으로 나타난다. 이 단계의 유아가 색을 좋아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색의 사용이 종합적이고 총체적인 경험의 표현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이 초기의 유아에게 많은 색을 사용하기를 강요하면 오히려 마음이 산만해져서 순수한 자기감정과 자유로운 행위의 표현이 제한되어지기 쉽다. 마구 그런 착화 위에 의미를 붙이면서 적당한 자극을 주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러한 자극은 무엇을 그렸느냐를 명백히 하자는 데에 있지 않고, 새로운 상상을 북돋는 데에 있다. 유아의 흥미 있는 경험과 환경은 그것이 곧, 학습이요 창의성을 도모하는 계기이기 때문이다.

### ② 상징·직관적 형상화 시기(만 4~6세)

유아가 보다 분명해진 주제 의식과 자신감으로 충만해진 시기이다. 유아

가 사실적 표현을 처음으로 시도하게 되는 이 시기에는 형태적 상징기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대상의 형태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데 관심을 기울이게 된다.

상징·직관적 형상화 시기의 아동은 여러 가지 색채 중 자신의 마음에 드는 것을 골라 사람을 빨강, 파랑, 노랑 등으로 칠한다. 이 시기에 유아는 흥미를 끄는 색채를 선택한다. 이러한 색채 선택은 심리학적으로도 의미가 있지만 그 의미는 개별적으로 매우 다양하다. 아동과 색채와의 최초의 관계는 주로 정서적인 특성에 의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는데 이 시기에 색채의 사용은 아동에게 흥미 있는 경험이 되며 아동은 색에 대한 ‘직접적인’ 관계에 큰 욕구를 가지고 있지 않고 색 그 자체를 즐기게 된다.

### ③ 인지적 형상화 시기(만 7~8세)

인지적 형상화 시기의 아동은 자연스럽게 색채와 대상과의 관계를 발견한다. 색은 더 이상 주관적인 경험이나 정서적인 관계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 사람을 그린 그림에서 어린이는 명확한 개념에 도달하여 도식<sup>28)</sup>을 구체화한다. 도식은 공간의 표현에 나타나 반복을 통해 의미를 갖는 어떤 기호들이나 상징들로 일관성 있게 공간이 표현되는 것을 말한다. 공간관계의 질서를 인식하게 되는 아동은 공간의 표현에서 아동 나름대로의 독특한 표현이 나타나게 된다. 공간의 표현방법인 기저선, 전개도식 표현, 공존화적 표현, 투시적 표현 등이 있다.

이 시기의 색채 도식은 시각적이거나 정서적인 색채 개념에서 비롯된다.

---

28) schema 어떤 대상을 거의 비슷한 형태로 계속 그리는 것. 어린이가 그리려는 대상과 자신의 표현사이를 동일화하려 하면서 점차 발달하는 어린이의 표현양식의 하나로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에 매우 많은 대상들에 대하여 도식을 갖게 된다.

아동이 대상과 갖는 최초의 의미 있는 관계는 분명하게 색채 도식을 결정한다. 아동이 땅과의 관계를 흙, 마당에서 처음으로 확립했다면, 그리고 반복을 통해 이러한 공간 경험이 확고해졌다면 잔디가 있고, 없고 관계없이 땅은 갈색으로 표현될 것이며, 이러한 색채도식은 색채 변화가 중요해지는 경험을 하지 않는 한 변하지 않는다.

#### ④ 사실·도식화 시기(만 9~11세)

이 시기로 접어들면서 아동은 점차 사실적인 묘사로 접근해 간다. 실물과 똑같이 그리는 단계지만 아동에게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 그 이유는 두뇌의 지각 기능만큼 손의 기능이 따라 주지를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너무 과도한 사실화를 추구하다 보니 만화 그림 같이 변화될 수도 있어서 미술교육의 가장 어려운 시기라 할 수 있다.

색채면에서 도식적인 색채와 대상관계로부터 벗어나 특성 있는 색채로 표현하기 시작한다. 물론 색의 차이점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다고 해서 진정한 시지각으로 볼 수는 없다. 아직은 명암에 의해 색이 변화하는 효과나 색채 분위기가 자아내는 효과를 설명하지는 못한다. 9~11세의 아동이 사용하는 색은 그 아동의 주관적 반응과 관련되어 있다. 어린이는 물감을 즐겨 쓰게 됨에 따라 색의 차이와 유사점에 대해 보다 민감해진다.

12세정도가 되면서 아동은 논리의 시대라고 할 만큼 성숙해 가고 있다. 그러다 보면 그림보다는 문자나 그림 외적인 쪽으로 흥미를 빼앗기게 된다.

S. Burt는 그림보다는 언어를 매개로 하는 표현에 흘러가기 쉽다고 하였고, 린스트롬은 그림을 잘 그리는 아동과 못 그리는 아동은 만화로 그치는 양분된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V. Lowenfeld도 같은 의견으로서, 시각형과 비시각형으로 분류하고, 어떤 것이 미술적으로 우위인지는 규명하지 못했다. 시각형 그림은 교과서적인 표현이고 비시각형은 감정이 풍부한 그림이다.

의사실기아동의 색채는 인물과 공간 표현 등과 함께 변화를 겪게 된다. 색에 대한 지각을 가진다는 것은 외부의 다양한 상황에서 겪게 되는 색채의 변화를 감지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같은 색깔도 밝고 어두운 상태에 따라 다르게 느껴지며 주변색들은 중심색에 영향을 미쳐 다르게 보이기도 하고 흐린 날의 빨강이 맑은 날에는 아주 다르게 보이기도 한다.

아동은 이러한 변화에 주목하고 자신의 시각적 인상들을 색에 적응시킨다. 반면 비시각형 어린이는 색에 대한 자신의 정서적인 반응에 크게 의존하는데 대다수의 아동들은 이런 두 극단 사이에서 두 가지 특성을 함께 보여준다.

## 2) 연령별 색채 선호도

색채선호 경향은 인성적·심리적 요인에 관계도 있으며, 사회적·문화적 요인에도 영향을 받기도 한다. ‘아동에게 있어 색(色)이란 감정표현의 언어로써 사실적인 것보다 상징적인 것으로 사용된다.’<sup>29)</sup> 즉, 색채는 경험과 정서적 충동이 전혀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비록 색의 개념이 약하다 해도 자신의 욕구와 동기에 따라 색을 사용한다.

아동들은 그림을 그릴 때 선(線)과 형(形), 그리고 색(色)을 이용하여 표현을 한다. 이 때 사용되는 색은 자신들이 그려놓은 형들에 깊은 의미를 부여하고 그들의 심상의 세계를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Lowenfeld에 의하면 “5~6세 이후에 색채의 구별이 가능하며 자신의 감

---

29) 권상구, 「아동미술교육」, 미진사, 1991, p.38

정과 정서에 따라 색을 선택하여 칠한다고 한다. 초등학교시기에 색에 대한 객관적인 안목이 생겨 물체와 색의 관계를 발견하게 되며, 이 시기에 도식(Schema)이 형성되고, 다양한 색에 흥미를 느끼며 자연에 가까운 색을 사용하며, 또, 한 가지 색의 사용에 대한 지나친 관심은 표현활동에 방해가 될 수 있다.”<sup>30)</sup>고 하였다.

Kellog는 “아동의 그림은 주로 선화이며, 색에 대한 감각은 뒤늦게 발달하고 주관적 감정에 따라 색을 선택하여 그린다.”<sup>31)</sup>고 하였다.

김정은 나이가 어릴수록 원색이나 맑은 색을 사용하나 점차 다양한 색을 주관적인 경험에 관련시켜 사용하며, 무질서한 색채를 배열한다. 초등학교 시기에는 색채의 개념이 형성되며, 물체와 색채의 관계를 연관지을 수 있다고 색채에 대한 특징을 조사하고 있다.<sup>32)</sup>

대체적으로 아동은 5세 이전에도 자신이 좋아하는 기호색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 구분이 모호하고 차차 성장해 가면서의 남·여 성(性)차이에 따른 관심도가 달라지며, 아동의 지각과 경험에 의해서도 달라진다. 이에 일본학자 쓰까다도리는 “색의 감정이나 이미지는 인간마다 복잡한 경험에 의한 것이므로 하나로 단정하기는 힘들다고 전제하고, 대체로 나이가 어릴수록 원색계통을 좋아하며, 일반적인 개념은 어른과 비슷하다.”<sup>33)</sup>고 했다.

유아동들은 각각의 색에 대한 자신들 나름대로의 감정과 정서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각각의 만5~만6.5세 아동들에게 9가지 색깔(분홍, 빨강, 노랑, 검정, 회색, 녹색, 파랑, 보라, 갈색)을 하나씩 보여 주며 각각의 색에

---

30) Lowenfeld & Brittain 공저, 서울교육대학교 미술교육연구회 역 「인간을 위한 미술 교육」, 미진사, 1995, pp.119~120

31) 조태예, 「아동기 조형이론의 분석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논문, 1986, p.59

32) 김정, 「아동의 미술교육연구」, 창지사, 1991, p.338

33) 유아미술연구회 저, 「유아미술교육」, 학문사, 1995, p.136

대한 아동들의 느낌을 물어보았다. 아동들은 밝은 색들에 대해 긍정적인 감정 표현을 하는 반면, 어두운 색에 대해선 부정적인 감정을 나타냈다. 특별히 여아들의 경우에 이러한 현상이 더 두드러졌다. 또한 나이에 따른 차이도 있었는데 나이가 더 많을수록 밝은 색에 대한 긍정적 감정과 어두운 색에 대한 부정적 감정이 더 컸다.

이 연구 결과에 의해 어린 아동들도 색에 대한 정서와 감정에 대한 개념 또는 도식을 갖고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또한 아동이 성장해 감에 따라 색에 대한 정서 개념도 다양한 사회 경험과 환경을 통해 더 구체화되어질 수도, 더 복잡해질 수도 있다고 하겠다.<sup>34)</sup>

색에 대한 견해는 여러 학자마다 견해가 다르고, 아동의 그림 역시도 객관적인 현상보다는 자신의 욕구나 감정에 의해 일정한 형식이 없듯이 어떠한 색을 자주 등장시킨다는 것으로 아동의 성격이나 심리를 확정짓는 것은 극히 위험한 일이다. 왜냐하면 어떤 특정 색에 대한 관심은 아동에게 한정적인 것이 아니라 수시로 변화하며, 그 색의 사용은 상당 기간 동안 욕구에 의해 사용되기 때문이다.

영유아동에게 좋아하는 색깔 한 가지만을 선택해서 그리라고 지시했을 때 어떤 색깔이 많았는가에 대하여 여러 조사가 있다. 또한 심리학 분야에서도, 어린이 성격과 색채를 관련시켜 조사한 결과가 있지만, 어떤 것이 정확하며 타당성이 있는가를 따지기 이전에 전부 가설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러한 것들은 어디까지나 방법이지 결론이 아니기 때문이다.<sup>35)</sup>

---

34) Boyatzis, C. J., and Varghese, R. 「Children's Emotional Associations with Colors」, The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55(1), 1993, pp.77-85

35) 김정, 「아동의 미술교육연구」, 창지사, 1991, p.338

## IV. 영유아의 기질조사 및 색채선호도 연구

### 1. 연구 방법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에 거주하는 3~7세의 유아들이며 사설유치원 1곳, 2곳의 어린이집과 3곳의 미술학원에서 총 726명을 선정하였다. 설문조사를 통한 연구에 참가한 어린이들의 성별, 연령별 분포는 다음과 같다.

<표 4> 연구에 참가한 영유아 인원

	남 아	여 아
3 세	10	4
4 세	23	11
5 세	68	56
6 세	175	96
7 세	131	152
계	407	319
총 합	726	

설문 조사 후 비교를 쉽게 하기 위해 남녀 성비율을 동일하게 맞추려고 했으나 최근 문제시 되고 있는 남녀 성비율 불균형이 두드러지게 나타나 그것이 쉽지 않았다. 여아의 조사인원에 남아의 인원을 맞추려면 버려지는 남

아의 설문지가 너무 많아 남녀 비율에 상관없이 불성실하게 답한 설문지 37부를 제외한 726부를 최종 사용했다.

본 연구의 설문지는 기질과 색채선호도, 자유화의 3부분으로 이루어졌다. 기질조사는 S. Chess와 A. Thomas가 뉴욕종단연구(New York Longitudinal Study)를 토대로 만든 72문항의 부모용 유아 기질 검사 도구를 32문항으로 축약하여 부모가 직접 답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으며 부모들이 답한 문항들에 점수를 매겨 순한 기질(easy temperament)의 아이, 까다로운 기질(difficult temperament)의 아이, 반응이 느린 기질(slow-to-warm-to temperament)의 아이 중 어느 기질에 속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표 5> 본 연구에 쓰여진 부모용 유아기질검사도구

자녀의 행동사항	거의 아님	가끔씩	자주	언제나
1. 악취를 빨리 맡으며, 악취에 대해 말을 한다.				
2. 모르는 사람을 보면 부끄럼을 탄다.				
3. 매일 거의 같은 시간에 대변을 본다.				
4. 과거에 싫어했던 음식을 지금은 먹는다.				
5. 모르는 아이를 만나면 수줍어한다.				
6. 지나치게 시끄러운 음악이나 소리에 대해 불평을 하지 않는다.(시끄러운 소리에 무감각한 편이다)				
7. 매일 거의 같은 시간에 간식을 달래거나 먹는다.				
8. 다른 사람의 집을 두어번 방문하고는 이내 친숙함을 느낀다.				

자녀의 행동사항	거의 아님	가끔	자주	언제나
9. 밤에 잠자리에 든 후에 매일 거의 같은 시간에 잠이 든다.				
10. 새로운 음식을 먹어보기 좋아한다.				
11. 색깔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한다.(예를 들어 예쁘다든가 밋다고 말을 한다)				
12. 머리 깎기, 빗질, 목욕 같은 것을 한번 거절하기 시작하면 그 고집이 최소한 몇 개월은 간다.				
13. 공원이나 낯선 곳에 가서도 처음 보는 아이들과 금방 어울린다.				
14. 매일 자는 시간이 불규칙적이어서 어느 날은 많이, 다른 날은 적게 잔다.				
15. 음식이 뜨겁거나 차가운데 대해 별로 상관하지 않는다.				
16. 낯선 어른 앞에서 잠시 부끄러워하다 가도 곧(대략 30분 이내에)친숙해 진다.				
17. 배고파하는 시간이 매일 일정하지 않다.				
18. 빛의 밝고 어두운 변화에 매우 민감하다.				
19. 부모와 함께 집을 떠나 다른 장소에 가면 며칠씩이나 새로운 잠자리에서 잠을 이루지 못한다.				
20. 가족과 여행을 가면 곧 새로운 환경에 적응한다.				
21. 우리 집을 방문한 낯선 어른에게 접근하며 쉽게 친해진다.				

자녀의 행동사항	거의 아님	가끔	자주	언제나
22. 매일 먹는 음식의 양이 같지 않아서, 어떤 날은 많이 먹고 어떤 날은 거의 먹지 않는다.				
23. 집안이나 집밖에서의 온도차에 별로 상관하지 않는다.				
24. 유아원, 유치원 등 새로운 상황에 처하면 며칠이 지나도록 불안해한다.				
25. 주말과 휴일에도 다른 날과 거의 같은 시간에 깨워주지 않아도 일어난다.				
26. 옷이 꼭 끼거나, 어디가 가렵다든가, 불편한데 대해서는 몹시 예민하여 곧잘 불평을 터트린다.				
27. 매일의 일과에 변화가 생길 때(유치원에 갈 수 없는 등), 쉽게 새로운 일과에 따른다.				
28. 처음으로 엄마 없이 혼자 새로운 상황(유치원, 음악학원 등)에 남게 되면 당황해 한다.				
29. 새 옷 보다 입던 옷을 좋아한다.				
30. 옷이 더러워지거나 젖게 되더라도 별로 개의치 않는다.				
31. 우리 집과 규칙이 다른 가정의 규칙에 적응하는 것을 어려워한다.				
32. 식사시간이 한 시간 이상 늦어지더라도 보채지 않고 가만히 기다린다.				

<표 6> 기질 유형의 조작적 정의 - 기질군 분류기준

기질 유형	조작적 정의
반응이 느린 기질	까다로운 기질군과 같으나 반응성 측면에서 평균치보다 낮은 유아
순한 기질	적응성, 접근-후퇴(접근의 긍정적인 측면), 규칙성의 점수가 평균치보다 높은 반면 반응성은 보통인 유아
까다로운 기질	규칙성과 적응성, 접근-후퇴가 평균치보다 낮은 유아

색채선호도조사는 아이가 답하되 아직 글을 모르는 영유아들은 부모가 아이들에게 묻고 대신 표기해 주는 방식을 이용하도록 했다. 설문지에 사용된 색은 빨강, 주황, 노랑, 연두, 녹색, 하늘색, 파랑, 황토색, 갈색, 흰색, 회색, 검정으로 기본적인 12가지 색상이며 영유아들에게 12가지 색상 중 가장 좋아하는 색과 싫어하는 색을 묻고 그 이유도 질문하였다. 또한 본 연구 주제와는 다소 거리가 있지만 각 12가지 색상에 대해 연상되어지는 것들도 질문해 보았다.

마지막으로 자유화는 주제, 재료, 표현방식 등 아무 제한 없이 백지 한 장에 마음껏 표현하도록 하고 연구에서는 그중 아이의 색채표현만을 조사하였다.

## 2. 기질 연구

기질을 조사하기 위해 본 연구자가 사용한 설문지는 규칙성, 적응성, 반응성, 접근-후퇴의 4개의 하위영역으로 총 32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영역의 문항구성은 다음과 같다.

<표 7> 설문지에 쓰인 기질 문항구성

영역	문항번호	문항수
규칙성	3, 7, 9, 14*, 17*, 22*, 25, 32*	8
적응성	4, 8, 12*, 16, 19*, 24*, 27, 31*	8
반응성	1*, 6, 11*, 15, 18*, 23, 26*, 30,	8
접근-후퇴	2*, 5*, 10, 13, 20, 21, 28*, 29*	8

\*표는 역채점 문항임

이렇게 구성된 설문지 조사연구 결과 각 기질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남·여아 분포와 백분율을 나타내었다.

<표 8> 기질군에 따른 남·여아 분포와 백분율

	순한 기질	까다로운 기질	반응이 느린 기질
남아	338(56.4%)	46(61.3%)	23(44.2%)
여아	261(43.6%)	29(43.6%)	29(55.8%)
계	599	75	52

조사대상의 아이들 중 대다수가 순한 기질에 속하였고 726명 중 599명을 차지하여 전체의 82.5%가 순한 기질의 아이에 속했다. 또 599명 중 남아는 338명으로 56.4%, 여아는 261명으로 43.6%를 나타내었다. 까다로운 기질군은 726명 중 75명의 아이들이 속했으며 전체의 10.3%를 차지했으며 75명중에선 남아는 46명으로 61.3%를 여아는 29명으로 43.6%를 나타내었다. 마지막으로 반응이 느린 기질의 아이는 726명 중 52명으로 전체에서도 7.2%의 제일 낮은 비율을 나타내었고 52명중에서는 남아가 23명으로 44.2%, 여아는 29명으로 55.8%를 나타내었다. 성별, 연령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각 기질군에서 다음과 같은 분포와 백분율을 나타냈다.

<표 9> 성별, 연령별로 본 각 기질군의 분포와 백분율

	3세		4세		5세		6세		7세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순한 기질	6 (60)	4 (100)	17 (73.9)	8 (72.7)	49 (72)	42 (75)	150 (85.7)	75 (78.1)	116 (88.5)	132 (86.8)
까다 로운 기질	3 (30)	0	4 (17.4)	1 (9)	12 (17.6)	9 (16)	18 (10.2)	10 (10.4)	9 (6.9)	9 (5.9)
반응 느린 기질	1 (10)	0	2 (8.7)	2 (18.1)	7 (10.2)	5 (8.9)	7 (4)	11 (11.4)	6 (4.5)	11 (7.2)
계	10	4	23	11	68	56	175	96	131	152
총합	726									

모든 연령과 성별에서 순한 기질의 아이가 제일 많았고 3세 여아의 경우 100%가 순한 기질군에 속했다. 반면 남아의 경우 순한 기질이 많으나 까다로운 기질이 30%를 반응이 느린 기질이 10%를 차지하였다.

4세의 경우도 남·여아 모두 순한 기질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나 남아는 까다로운 기질이 17.4%로 반응이 느린 기질보다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반대로 여아는 반응이 느린 기질이 18.1%로 까다로운 기질보다 2배 정도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5세 또한 성별 구분 없이 순한 기질의 아이가 70%를 넘기며 가장 많았고 까다로운 기질의 아이는 남아 17.6%, 여아 16%로 비슷한 비율을 보였으며, 반응이 느린 기질의 아이는 각각 10.2%와 8.9%였다.

6세와 7세는 순한 기질군이 80%를 넘어 눈에 띄게 많아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까다로운 기질과 반응이 느린 기질은 비율은 다른 나이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7세 남아의 까다로운 기질은 6.9%, 반응이 느린 기질은 4.5%이며 여아의 경우는 까다로운 기질이 5.9%, 반응이 느린 기질의 아이는 7.2%로 나이가 점점 많아질수록 까다로운 기질과 반응이 느린 기질의 비율이 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3. 색채선호도 조사

아이들은 색채를 우연히 아무렇게나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환경이나 감정 등에서 우러나는 일정한 규칙에 의해 구사하는데 이런 전제라면 기질 또한 어린이들이 색채를 선택하는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기질군이 어떤 색상을 좋아하며, 더불어 싫어하는 색상은 무엇인지 알아보고 실제로 아무 제재 없이 자유화를 그리게 했을 때 그대로 반영

되어 그림을 그리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해 보았다. 먼저 설문지로 아이들에게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색과 싫어하는 색을 물어보았는데 답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표 10> 기질군에 따른 선호 색채

	순한 기질	까다로운 기질	반응이 느린 기질
가장 좋아하는 색	녹색	노랑	회색
가장 싫어하는 색	없다	검정	없다

싫어하는 색을 질문했을 때 의외로 없다라는 답이 많았는데 까다로운 기질군에서만 검정색이 싫다고 답한 아이들이 많았다.

<표 11> 색채의 심리

	특 징
빨강	활발, 자기주장이 강함, 거친 행동, 부모에게 불복종, 생각 없이 앞장섬
노랑	냉정, 친구를 골라 사귀, 신경이 예민, 권위적
녹색	완고, 주장이 강함, 사교적, 판단력 탁월, 상상력 풍부, 노력형
파랑	불안스런 성격, 잘 놀람, 공상적, 자기주장이 강함
흰색	내성적, 고집이 셈, 사고력 부족, 친구가 적음, 자기 과시형, 폐쇄적
회색	경계심이 많음, 외로움을 잘 탐, 냉철하고 내성적, 창의력 풍부, 편식습관
검정	짚궂음, 실천력이 강함, 적응력이 좋음, 지능지수가 높음, 남의 눈치를 잘 봄

앞의 <표 11>은 연구 결과와 색채 심리를 비교하기 위해 서구나 일본의 표본조사의 틀에서 벗어나 한국유아의 색채별 심리상태를 독자적인 방법으로 연구한 정대식의 「아동미술의 심리연구」에서 요약한 것이다.

<표 12> 기질군에 따른 색채선호도 분포와 백분율

	순한 기질	까다로운 기질	반응이 느린 기질
빨강	57 (9.5)	19 (25.3)	4 (7.7)
주황	23 (3.8)	3 (4)	2 (3.8)
노랑	39 (6.5)	27 (36)	4 (7.7)
연두	61 (10.2)	0	1 (1.9)
녹색	128 (21.4)	1 (1.3)	2 (3.8)
하늘	92 (15.4)	2 (2.7)	3 (5.8)
파랑	64 (10.7)	14 (18.7)	5 (9.6)
황토	15 (2.5)	0	0
갈색	10 (1.7)	1 (1.3)	2 (3.9)
흰색	29 (4.8)	2 (2.7)	5 (9.6)
회색	32 (5.3)	4 (5.3)	13 (25)
검정	49 (8.2)	2 (2.7)	11 (21.2)
계	599	75	52

조사 결과와 같이 순한 기질의 아이들은 녹색(21.4%)을 가장 좋아했으며 하늘색(15.4%), 파랑(10.7%), 연두(10.2%), 빨강(9.5%)의 순으로 선호도를 보였으며 까다로운 기질의 아이는 노랑(36%)을 가장 좋아하며 빨강(25.3%), 파랑(18.7%)의 순으로 선호도를 나타냈는데 이 세 가지 색을 제외하고 다른 색의 비중은 확연히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반응이 느린 기질은 회색(25%), 검정(21.2%), 파랑(11.5%)의 순으로 좋아했는데 반응이 느린 기질의 어린이들도 까다로운 기질과 마찬가지로 이 세 가지 색을 제외한 다른 색은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데 두 기질은 이 조사에서 좋아하는 색과 그렇지 않은 색이 두드러지게 차이를 보이고 있다.

## V. 결 론

본 연구는 태어나면서 나타나는 성격특성으로 성장 후까지 매우 안정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유전적 성향인 기질(temperament)에 대해 알아보고 영유아들에게 나타나는 기질과 그에 따른 색채 선호도를 조사하여 영유아의 감성적, 지적, 미적, 창조적 성장의 부분을 나타내는 중요한 단서로 활용되고 있는 색채 표현과 기질을 적절히 조화시켜 올바른 성장을 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분명 아이들의 감정이나 정도를 이해하는 단서는 색채라고 할 수 있고 색채는 생활 감정과 정서적인 반응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색채 연구는 미술에 있어 심리적인 측면과 종합적인 측면을 알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조사 대상은 서울에 소재한 3~7세 영유아들이며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연구와 사례연구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사례연구에서는 설문지를 통한 조사, 통계, 분석의 방법이 이용되었다. 연구에 사용되어진 설문지는 총 726부이며 부모와 그들의 자녀들에 의해 성실하게 답하여진 설문지만을 이용했다.

기질 연구는 Thomas와 Chess의 이론이 중심이 되었다. 생후 초기부터 인간은 뚜렷한 개인차, 이것을 ‘기질’이란 개념으로 설명한 사람이 Chess와 Thomas이며 1956년 시작된 뉴욕종단연구(New York Longitudinal Study)에서 출생부터 모든 영유아들에게 개인차가 있음 발견하고 그러한 개인차가 성장을 하여도 계속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연구했다. 본 연구자는 이 조사연구에서 Thomas와 Chess처럼 장기간, 많은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이론에 의한 기질 분류가 한국에서도 적용이 될 수 있는지를 확인 할 수 있었다.

색채선호도 연구에서는 이때까지 성별, 연령별 조사는 많이 이루어졌으나 기질에 따른 색채표현 연구가 미미하여 기질에 따른 영유아들의 색채표현 연구물을 찾아 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 기질과 색채표현을 연관시켜 조사를 했으며 단, 그림에서도 주제, 구도, 표현방법, 색채 등 많은 세세한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본 연구자는 색채표현만을 집중적으로 연구하였다. 하지만 앞으로 더 많은 것들과 연관하여 색채연구는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문제에 대한 결과의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영유아의 기질 조사에서는 순한 기질의 아이들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까다로운 기질의 아이, 반응이 느린 기질의 아이 순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Thomas와 Chess가 밝혀낸 세 가지 기질유형인 순한 기질(easy temperament)의 아이, 까다로운 기질(difficult temperament)의 아이, 반응이 느린 기질(slow-to-warm-to temperament)의 아이에 의한 분류이며 그들은 순한 기질의 아이는 40%를 차지하며, 반응이 느린 기질의 아이는 15%의 범주에 속하며 까다로운 기질의 아이는 연구대상의 10%에 속한다고 했지만 본 연구에서는 순한 기질의 아이가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또한 까다로운 기질의 아이가 반응이 느린 기질의 아이보다 많은 비율을 보였다.

이 차이는 지역과 대상에 따라 달리 나타날 수 있는 사소한 부분이라 생각되어지며 Thomas와 Chess가 주장하는 바는 순한 기질의 아이가 영유아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이므로 본 연구결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본다.

둘째, 기질군에 따른 남·여아 분포와 백분율을 비교해본 결과 순한 기질과 까다로운 기질은 남아가 더 높게 나타났으며 반응이 느린 기질의 아이는 여아가 더 높은 비중을 나타내었다. 이것은 남자 어린이는 적극적이며 주장이 강

하며 여자 어린이는 소극적이며 얌전하다는 통념을 증명해 주는 결과이기도 하다.

셋째, 순한 기질의 아이들은 녹색을 가장 좋아하며 하늘색, 파랑, 연두, 빨강의 순으로 선호도를 보였으며 까다로운 기질의 아이는 노랑을 가장 좋아하며 빨강, 파랑의 순으로 선호도를 나타냈는데 이 세 가지 색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관심을 드러내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반응이 느린 기질은 회색, 검정, 파랑의 순으로 좋아했는데 반응이 느린 기질의 어린이들도 까다로운 기질과 마찬가지로 이 세 가지 색을 제외한 다른 색은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 결과를 정대식의 「아동미술의 심리연구」와 비교했을 때 기질의 특징과 색채심리와 많은 부분이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녹색을 좋아하는 어린이는 완고하며 주장이 강하고 사물을 잘 판단하고 상상력이 풍부하다고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 그것은 녹색을 가장 좋아하는 순한 기질의 아이의 특징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반면, 까다로운 기질의 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노랑은 성격이 매우 냉정하며 친구를 골라 사귀고 신경이 예민하며 권위적이라고 서술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까다로운 기질의 아이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특징과 비슷하다. 마지막으로 회색을 좋아하는 아이는 경계심이 많고 외로움을 타며 냉철하고 내성적이나 창의력이 풍부하고 편식의 습관이 있다고 하는데 반응이 느린 기질을 가진 아이들이 가진 특징이기도 하다.

넷째, 영유아들에게 백지 한 장에 아무런 제한 없이 마음껏 표현하도록 했을 때 위에서 나타난 통계가 맞게 나타나지 않았다. 다시 말해 좋아하는 색채만을 많이 쓴다거나, 싫어하는 색채는 전혀 쓰지 않는다거나 하는 것을 볼 수 없었는데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학원이나 부모들에 의해 도식화된 그림을 그리도록 강요되어지는 관습과 아이들이 소유하고 있는 재료의 제한되어진 색 안에서 표현하다보니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다. 이것은 3~4세의

어린 유아보다 사회생활을 하게 되는 5~7세 아이일수록, 12색만을 사용하는 영아보다 48색을 가진 유아가 더 심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되었지만 짐작해 볼 수 있었다.

끝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해석하고 결론을 내리는데 있어서 본 조사가 서울 지역으로 한정하고 있어 이 연구결과를 일반화 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참 고 문 헌

### <단행본>

- 김재은. (1983). 「그림에 의한 아동의 심리진단」. 서울:교육과학사.
- 파머 비렌, 金化中 譯. (1985). 「색채 심리」. 서울:東國出版社.
- 김재은. (1985). 「유아심리」. 서울:창지사
- 김춘일. (1985). 「아동 미술론」. 서울:미진사.
- Papalia, Olds, Felman 저. 박성연 역. (1991), 인간발달 I -아동발달-. 서울 교육과학사.
- 권상구. (1991). 「아동미술교육」. 서울:미진사.
- 김진숙. (1993). 「미술 심리치료의 이론과 실제」. 서울:중앙 적성 출판사.
- 유아미술연구회. (1995). 「유아미술교육」. 서울:학문사.
- 한국인간발달학회편저. (1995). 「유아의 심리」. 서울:中央適性出版社.
- B.M. 웰런, 박연선 옮김. (1995). 「컬러 하모니」. 서울:미진사.
- 차동재. (1995). 「아동미술의 지도와 이해」. 서울:미진사.
- 정대식. (1995). 「아동미술의 심리연구」. 서울:미진사.
- 만리오 브루자틴, 이수균 옮김. (1996). 「色 -역사와 이론을 중심으로-」. 서울:미진사.
- 파머 비렌, 김지한 옮김. (1996). 「색채의 영향」. 서울:시공사.
- 모틴 워커, 김은경 옮김. (1996). 「파워 오브 컬러」. 서울:교보문고.
- 윤운성·정정옥 공저. (1998). 「영아·유아·아동 발달심리」. 서울:교육아카데미.
- 마가레테 브룬스, 조정옥 옮김. (1999). 「색의 수수께끼」. 서울:세종연구원.
- 이현수, (2001). 「성격과 행동」. 서울:학지사.

Cathy A. Malchioidi, 김동연 이재연 홍은주 공역. (2001). 「아동미술심리학」. 서울: 학지사.

스에나가 타미오, 박필임 옮김. (2001). 「색채심리」. 서울: 예경.

에바 헬러, 이영희 옮김. (2002). 「색의 유혹」. 서울: 예담.

安榮珍. (2002). 「새 아동발달연구」. 서울: 도서출판 꾸벅.

### <학위논문>

이 근. (1981). 「영아기의 기질(Temperament)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원영미. (1990). 「유아의 기질 및 그 관련변수와 유치원 아동의 적응과의 관계」.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이선화. (1996). 「유아의 기질과 사회적 적응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대학원.

이성자. (1997). 「유아미술의 색채와 선과 성격·지능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순천향대학교 대학원.

홍성도. (1999). 「한국 아동의 기질특성」. 석사학위논문, 충북대학교 대학원.

이남옥. (2000). 「아동 미술교육에 있어서 색채의 중요성」. 석사학위논문, 조선대학교 대학원.

황민순. (2001). 「아동화의 발달 단계별 표현 특성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이경숙. (2002). 「색채가 아동미술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박인숙. (2002). 「미취학 아동의 색채선호도에 관한 연구: 색채가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용인대학교 대학원.

김명가. (2003). 「아동미술교육에 있어서 색채 지도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대구카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 <학회지, 정기간행물>

박정희, 「아이와 친해지는 6가지 방법」,데이콤웹진, 2002 / 9월호

Jeffrey Kluger, 「Preventive Parenting :Paying attention to a baby's unique personality may head off problems before they happen」, TIME, Jan. 21, 2002 - Jan. 27, 2000

김동연, 한홍석. 「난화분석을 통한 자폐아동의 심리특성연구」. 특수 교육학회지 12집.

# ABSTRACT

Back, jae kyung

Fine Art Education Major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ung Shin Women's University

According to previous researches, the word personality widely mentioned to define and explain behaviors of children. However, since 1950, the word temperament has become a new word to define the behavior. In 1950s, in America, Alexander Thomas and Stella Chess started research project. Almost same period, in the Soviet Union, Moris M. Teplov and Vull S. Merlin announced the homoplasmy theory. It became the base to definition for characteristic of children behavior. The revolutionized research is noticeable, because it is based on the scientific temperament research, which is different from traditional theory as Kretschmer (1944) and Sheldon (Sheldon & Stevens, 1942). Kretschmer and Sheldon describe the behaviors based on habitude as temperament. On the other hand, today temperament researchers explains that temperament is defined based on characteristic of visual behaviors to compare with the traditional researches about habitude. Today's temperament researches are also defined differently by different area. For instance, researchers in America and the Soviet Union research by different methodology. The Soviet Union researchers as Teplov and Vull S. Merlin explain the intensity of nerves system theory, so the objects are adults. On the other hand, American researches are based on the development of behaviors, so their researches are based on interview and the objectives are children. This research paper is based on the second theory.

As can be seen at resources of the Social Science Citation Index or Psychological Abstract, the number of Psychologists who use the word temperament and the frequency of the word have been increased since 1970s. Between 1975 and 1979, the frequency of word temperament increased up to 34.6%, between 1980 and 1984 rose up to 73.4% and from 1985 to 1989, the frequency reached up to 92.6%. This research is particularly focused on relation between the temperament and children arts.

The main purpose for this research is to interview children for expression of color and conduct a survey to find out the common issue. The survey is conducted from children between 3 and 7 years old and their parents based on kindergartens, preschools and art colleges in Seoul from November 2002 to September 2003.

First of all, the interviewer suggested a test to their parents for temperament and then divides as three different temperament groups. And also a survey was conducted from children about which color they like or not, when they see particular color, what they imagine about, when they draw a picture and what color they choose.

1. according to the test, three different temperament groups can be divided as 82.5% of easy temperament children, 10.3% of difficult temperament children and 7.2% of slow-to-warm-to- temperament children. As can be seen from temperament test, the main reason for larger percentage of difficult temperament children may be an effect of complex and instant modern society. Therefore, children become more stressful from young age to be adapted into the society. As a result, the number of difficult temperament children have been increased more than slow-to-warm-to- temperament children.

2. The test result is for color preference of each temperament group children. in the easy temperament group children, 21.4% of children like green, 15.4% of children choose sky blue and 10.7% of children prefer blue color. In the case of difficult temperament group children, 36% of the children like yellow, 25.3% of children like red and 18.7% of them chose blue. Finally, 25% of children from slow-to-warm-to- temperament group

children like grey, 21.2% of children like black and 11.5% of children prefer blue.

Jung, Dae Sick in his book *Research of Children Psychology* explains that children, who prefer green color, are strict, strongly assert their opinions, highly judge objects and have much imagination. The characteristic can be commonly found in the easy temperament children, who mostly prefer green color. On the other hand, the characteristic of difficult temperament group children, who like yellow most, are extremely calm, sensitive and selfish. Finally, children, who like grey color most as slow-to-warm-to- temperament group children, have high caution, loneliness, an introspective nature, much imagination and an unbalanced diet. However, when children do free drawings without any restriction, they do not avoid using unpreferred colors and do not choose only preferred colors. As can be mentioned when children do free drawings, they do not feel any kind of boundary about colors. It may result from a trend of diagrammatized drawings by parents themselves and today's education system. The trend may be strongly found between 5 and 7 years old children rather than 3 to 4 years old age group.

However, the further research should be done continually to examine the issue.

## 부 록 (설 문 지)

안녕하세요?

본 설문지의 응답을 위해 귀한 시간을 내어주신 학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설문지는 영유아의 기질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기질이란 성격의 기초를 형성하는 것으로서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자녀의 기질에 대한 질문지에는 부모님께서 자녀에 대한 평소생각과 가깝다고 생각하는 곳에 답해 주시고, 다음의 자녀의 색채에 대한 반응에 대해서는 자녀에게 물어본 후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문항이라도 답이 빠지면 설문지가 무용지물이 되오니 빠짐없이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에 여러분의 도움이 꼭 필요하오니 바쁘시더라도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설문지는 개인적인 비밀이 보장되며, 본 연구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3년 8 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연구자 : 백재경

설문 조사에 앞서 학부모님의 자녀이름과 나이를 기재해 주십시오.

단, 자녀의 이름은 연구에 거론되지 않습니다.

자녀 이름 : \_\_\_\_\_ (남, 여)

나 이 :            세

### 유아 기질 검사도구 (학부모용)

자녀의 행동 사항	거의 아님	가끔	자주	언제나
1. 악취를 빨리 맡으며, 악취에 대해 말을 한다.				
2. 모르는 사람을 보면 부끄럼을 탄다.				
3. 매일 거의 같은 시간에 대변을 본다.				
4. 과거에 싫어했던 음식을 지금은 먹는다.				
5. 모르는 아이를 만나면 수줍어한다.				
6. 지나치게 시끄러운 음악이나 소리에 대해 불평을 하지 않는다.(시끄러운 소리에 무감각한 편이다)				
7. 매일 거의 같은 시간에 간식을 달래거나 먹는다.				
8. 다른 사람의 집을 두어번 방문하고는 이내 친숙함을 느낀다.				
9. 밤에 잠자리에 든 후에 매일 거의 같은 시간에 잠이 든다.				
10. 새로운 음식을 먹어보기 좋아한다.				
11. 색깔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한다.(예를 들어 예쁘다든가 밋다고 말을 한다.)				
12. 머리 깎기, 빗질, 목욕 같은 것을 한번 거절하기 시작하면 그 고집이 최소한 몇 개월은 간다.				
13. 공원이나 낯선 곳에 가서도 처음 보는 아이들과 금방 어울린다.				
14. 매일 자는 시간이 불규칙적이어서 어느 날은 많이, 다른 날은 적게 잔다.				
15. 음식이 뜨겁거나 차가운데 대해 별로 상관하지 않는다.				
16. 낯선 어른 앞에서 잠시 부끄러워하다가도 곧(대략 30분 이내에) 친숙해 진다.				

자녀의 행동사항	거의 아님	가끔	자주	언제나
17. 배고파하는 시간이 매일 일정하지 않다.				
18. 빛의 밝고 어두운 변화에 매우 민감하다.				
19. 부모와 함께 집을 떠나 다른 장소에 가면 며칠씩이나 새로운 잠자리에서 잠을 이루지 못한다.				
20. 가족과 여행을 가면 곧 새로운 환경에 적응한다.				
21. 우리 집을 방문한 낯선 어른에게 접근하며 쉽게 친해진다.				
22. 매일 먹는 음식의 양이 같지 않아서, 어떤 날은 많이 먹고 어떤 날은 거의 먹지 않는다.				
23. 집안이나 집밖에서의 온도차에 별로 상관하지 않는다.				
24. 유아원, 유치원 등 새로운 상황에 처하면 며칠이 지나도록 불안해한다.				
25. 주말과 휴일에도 다른 날과 거의 같은 시간에 깨워주지 않아도 일어난다.				
26. 옷이 꼭 끼거나, 어디가 가렵다든가, 불편한데 대해서는 몹시 예민하여 곧잘 불평을 터트린다.				
27. 매일의 일과에 변화가 생길 때(유치원에 갈 수 없는 등), 쉽게 새로운 일과에 따른다.				
28. 처음으로 엄마 없이 혼자 새로운 상황(유치원, 음악학원 등)에 남게 되면 당황해 한다.				
29. 새 옷 보다 입던 옷을 좋아한다.				
30. 옷이 더러워지거나 젖게 되더라도 별로 개의치 않는다.				
31. 우리 집과 규칙이 다른 가정의 규칙에 적응하는 것을 어려워 한다.				
32. 식사시간이 한 시간 이상 늦어지더라도 보채지 않고 가만히 기다린다.				

## 색채 반응 조사 (유아용)

①	②	③	④	⑤	⑥
빨강	주황	노랑	연두	녹색	하늘
⑦	⑧	⑨	⑩	⑪	⑫
파랑	황토	갈색	흰색	회색	검정

1. 내가(유아가) 가장 좋아하는 색은 몇 번입니까? (     )번
2. 내가(유아가) 가장 싫어하는 색은 몇 번입니까? (     )번

다음 장에는 백지입니다. 백지에다가 크레파스나 사인펜 등 색깔이 들어간 재료로 그림을 그리게 해 주세요. 유아의 그림실력을 보려는 것이 아니라 색채 표현에 대해 알아보려는 것으로 형태에 신경을 쓰지 말고 자유롭게 그릴 수 있도록 해 주세요.